

원기 98년 교화연구소 연구발표

원불교 법회의식 및 정체성에 관한 연구발표

9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 차 례 ㉡

□ 회 순

□ 법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5
최정윤 교무

□ 가랑교당 일반법회 현황 및 제언..... 21
이장훈 교무

□ 미래시대 원불교 법회 정체성 모색..... 95
김도훈 교도

□ 메 모

㉠ 회 순 ㉠

1. 개 회

2. 입 정

3. 설명기도

4. 격려사

5. 발 표

- ◆ 발표 1: 법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 서울교구 재가교도를 중심으로 -
(최정윤 교무/교회연구소)
- ◆ 발표 2: 가락교당 일반법회 현황 및 제언 (이장훈 교무/가락교당)
- ◆ 발표 3: 미래시대 원불교 법회 정체성 모색 (김도훈 교도/화정교당)

6. 마무리 인사

7. 폐 회

발표 1

법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서울교구 재가 교도 중심으로-

최정윤 교무

▷ 원불교 교회연구소

1. 법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1) 문헌연구

① 법회의 순서와 진행방법에 대한 연구

원기 73년 3월 14일 교화연구소에서는 「법회의 순서와 진행방법」에 대하여 권도갑, 김일상, 이종진, 정상훈교무의 발표로 제 4차 교화연구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법회식순은 경종 10타 1. 개회 2. 입정 3. 독경 (서원문, 일상수행의 요법) 4. 교가 5. 심고 또는 기도 6. 법어봉독 7. 경강 및 설교 8. 성가 9. 기타 10. 성가 11. 폐회이다.

원불교 부평교당 권도갑 교무는 1. 현재 부평 교당의 법회 식순은 성가, 경종 10타 1. 개회 2. 교가 3. 심고 4. 법어봉독 ※ 5. 독경 (일상수행의 요법, 서원문) 6. 성가※ 7. 입정 8. 설교 9. 성가 ※ 10. 감각 감상 발표 (회광반조 체험 발표) ※ 11. 불전 참배 12. 기타13. 산회가 14. 폐회※ 15. 단법회로 식순중 ※ 표한 순은 현재 공식 식순과 차이가 나는 것임을 밝혔다.

그는 식순 진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밝히고 있다.

1) 독 경

독경은 불교에서 가장 순수한 신앙 행위이다. 따라서 《합장》을 하고 실시한다. 손을 내리고 할 때보다 훨씬 간절해지고 독경의 기쁨을 느낀다.

2) 입 정

현재 법회 식순의 흐름을 보면 시작 전 경종 10타에서 이미 교도들은 입정 상태에 들어간다. 때문에 개회를 하고 또 입정에 드는 것은 중복이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독경 순서에서도 역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있으므로 입정 순서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부평 교당에서는 설교 시간 전에 입정을 하는데 이는 법회의 중심이 설교시간이라 생각하여 이 시간 앞에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순서는 설교자를 향한 청법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감각 감상 발표 (회광 반조 체험 발표)

이 시간은 교도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신심 공부를 일으키게 한다. 또한 생생한 신앙 체험이 전달됨으로써 교무의 가르침(설교) 등이 실증되는 시간이다.

발표자도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공부와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고 기쁨을 느낀다. 만약 법회에 감각 감상 시간만 활성화 된다면 그 분위기는 매우 열기가 찰 것이다.

4) 불전 참배

교도들이 단별로 불전에 나와서 향을 사루고 참배하는 시간이다. 법회 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법신불 앞에 나가서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위해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법회 참여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유지 및 기타 헌공도 이 시간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헌공에 대한 정성도 높이고 서로 권면하는 역할도 한다.

5) 단 회

단회는 매 법회 시간에 실시한다. 법회 중에 단회를 하면 법회 분위기가 산만해진다. 이 시간 중에 반드시 그날 설교에 대한 서로의 감상을 발표하게 하여 다시 정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갖게 한다.

※ 현재 설교 시간은 15 ~ 20분이고, 감각 감상 발표는 평균 20분이다. 이 시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사전 준비와 발표 요령을 지도하고, 공부 표전을 주어 스스로 깊은 신앙 체험을 하도록 하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발표력이 신장되고 법회의 분위기는 기쁜 박수와 눈물, 힘찬 성가 소리로 가득하게 된다.

이어 김일상교무는 법회의 순서와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1. 서 론

예전 통례편 총설을 보면 (시대의 변천을 따라 작법의 부분만은 혹 변할 수 있으나 ---라고 밝혔다.)

이 말씀은 예에 관한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법회의 지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순서에 고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법을 수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시도가 된다.

2. 법회 의의의 재 고찰

가) 법회의 의의

법회는 법을 강론하여 훈련하며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법회의 진행과 순서는 마땅히 위의 세 가지 사항이 충분히 살려져야 한다.

나) 법회 참여의 자세

- 1) 법회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은 쉬고 --)
- 2) 교당에 오면, 법회에 참석하면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유지)
- 3) 법회의 순서 하나하나에 진심해야 한다. 특히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절차에 감명을 받으며)
- 4) 복과 혜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법의 실력을 얻으며)
- 5) 법회가 생활과 유리 되지 않아야 한다. (법으로서 행사하자는 것)
따라서 법회의 순서와 진행은 법회 참여자의 자세가 확립되도록 구성하고 진행 되어야 한다.

3. 현행 법회 순서에 대한 의견

가) 순서에서 문제로 느껴지는 것

순서가 전체적으로 법을 강론하고 훈련하고 신앙을 키워주기 보다는 행사를 위한 순서로 받아들여진다.

그 예를 든다면,

- 1) 개회와 폐회라는 말
- 2) 법어봉독
- 3) 교가와 산회가를 들 수 있다.

나) 법회 순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의견

현재의 법회 순서는 경종 10타, 성가, 개회, 입장, 독경, 교가, 설명기도, (심고), 법어봉독, 경강 또는 설교, 성가, 단모임, (법의 문답, 공부 사업과 애경사 보고 등), 성가, 폐회인데 이런 순서를 통해 대중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아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1) 설교 단상과 사회 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면 사회자를 따로 둘 필요 없이 교무 혼자서 진행하고 꼭 사회자가 필요하다면 훈련된 능숙한 사회자가 등단계 하여야 한다. 교도의 의식을 일관시키기 위함이다.
- 2) 법회가 단절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그 예로 사회의 움직임이 잦아서는 안 된다. 특히 교무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해야 한다. 이것은 법회의 장엄과 관계된다. 아울러 교도의 의식을 묶는 것과는 상통한다.
- 3) 법회의 전체 진행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로 축소되어야 한다.
- 4) 교도로 하여금 법당에서 잡담을 금하게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2부 법회를 운영해야 한다. (최소한 오전 법회와 저녁 법회로 구분)
- 6) 현재의 교도를 대상으로 법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를 훈련시켜야 한다.
- 7) 교도의 감각 감상 등으로 전체의 법회가 진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신년 초, 감각 감상 발표 등)

다) 발표자가 연구하고 있는 법회 순서

- 1) 경종 10타
- 2) 성가 (신앙적이고 감성적인 곡)
- 3) 심고 (다 같이 일어나 죽비에 맞춰 묵상 심고를 하되 《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은자 ○○○은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까지는 함께 복창을 하고, 소회를 따라 심고하다가 심고가의 반주가 시작되면 《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를 제창하여 소리 내고 심고가를 부른다.)
- 4) 불전 헌배(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대례로 사배를 올린다)
- 5) 독경 (앉아서 참회의 마음으로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한다.)
- 6) 법어 합독 (다 같이 법어를 합독한다.)
- 7) 성가
- 8) 입정
- 9) 경강 및 설교
- 10) 설명 기도 (설교 후에 설교 내용과 생활을 연관시켜 즉흥적으로 설교자가 설명 기도를 한다.)
- 11) 일상수행의 요법 (서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목탁 없이 암송)
- 12) 기타 광고

13) 성가 (법회를 마무리하는 성가)

4. 결론

이제는 신앙 행위적인 것과 훈련이 별리 운영되어야 한다. 또 훈련과 교육의 의미도 분명해져야 한다. 훈련은 체질화 시키는 것이라면 교육은 훈련을 위한 기초적 의식을 키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다.

현재의 예전의 법회에 입각하여 교도를 키우고자 한다면 법회가 철저하게 훈련적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초기의 법회 형태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회는 신앙적으로 흐름을 타게 해야 한다.

이어 이종진교무는 법회의 순서와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1. 서

현재 시행되는 교단의 모든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의식이 법회이므로 교당 교무는 예회의 진행과 내용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회의 식순을 수정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 1) 종래의 식순과 골격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
- 2) 법회 진행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
- 3) 진행자 교무와 교도 사이에 의식의 일체감이 형성
- 4) 신앙의 귀의 감정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의식
- 5) 대중사님의 교법의 정신과 그 식순의 의미가 하나하나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 되도록 하는 이 5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배열하였음.

2. 현행 식순의 검토

이 5가지를 주안점으로 놓고 법회의 식순을 검토해 볼 때 몇 가지 시정 사항이 발견된다.

- 1) 우리의 의식절차에 의하면 타종과 동시에 독경을 하고 독경이 끝나면 다시 타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법회 식순은 사회가 법신불전에 앉아서 타종 후 다시 사회 석에 돌아와 서서 죽비 3타로 개식하고 목탁을 울리며 독경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의식 절차에 맞지 않고 경종과 죽비3타로 동시에 두 번

개식 선언함이 된다.

- 2) 심고는 법신불전을 향해서 올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그 정신을 살리자면 사회자가 다시 불단에 올라가서 심고를 올려야 하는 번다함이 있다.
- 3) 일상 수행의 요법은 그 정신이 수행품 1장에 밝혀 주셨듯이 교법의 강령을 일상생활 속에서 대조하고 챙기는 수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앙이나 독경의 성격은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암송하는 것이 그 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
- 4) 개식 후 입정은 식순의 진행에 따를 분이지 참다운 입정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도들이 들어오고 앉고 하여 자리가 정비되지 않고 또 입정 후에 바로 서서 교가를 부르므로 법좌가 산만해지고 입정의 효과가 살아나지 않는다.
- 5) 종래의 식 진행은 사회가 거의 다 진행하고 교무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설교만 하여 교무와 교도 간에 의식에서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는 점이 있다. (교무도 식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
- 6) 죽비가 마음의 고삐를 풀고 묶고 하여 의식의 흐름을 단절시킨 점. 개식 3타, 심고 시작1, 끝1, 입정 시작1, 끝1, 일상 수행의 요법1, 폐회 3타 등 7번 친다.
- 7) 법회 의식 자체가 신앙성이 부족한 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은 심고순서 뿐. (설교 후 내용을 축소해서 법신불전에 기원. 법회 기도문 합독. 심고나 입정 시 성가 활용함으로써 신앙성 강화)

※ 법회 기도문 (예)

만유의 어머니시고 죄복의 근원이신 영명한 법신불 사은님!

새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구원겁래의 서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일월대도를 밝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믿고 섬기게 함으로써 망망한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컨대 저희들로 하여금 일체 마장과 고통에서 벗어나 락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감사함을 주시고 고액의 근본이 되는 삼독 악마를 물리쳐 필경 악도에서 해매는 중생을 건지는 불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호령하시는 법신불 사은전에 비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정상훈교무는 법회식순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교화부에서 제시한 식순 그대로 진행해 본 결과 좋았으며 이 식순을 지지하면서 식순 운영을 설명해보면 1. 법회 시작 30분 전(성가 테이프로 분위기 조성)2. 경종 10타 《 사회 보시는 교무님 》3. 개회 4. 입정사회자가 개식사를 마친 후 《 입정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법신불전에 앉아서 경종을 울리며 입정에 들어가고 출정도 경종을 신호로 함. 5. 교가사회자의 《 교가 성가2장을 함께 부르시겠다. 》는 안내에 합창 ※ 피아노를 전문인이 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6. 설명심고《 사회자》7. 법어봉독 《 교도회장 》교도회장의 법회 참여 의식과 관심을 드리기 위한 배려8. 성가 《 2 ~ 3곡 》 성가의 곡이 높아 부르기가 힘들다. 어느 곡은 1년이 넘어도 부른 적이 없을 때도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성가 1장에서부터 126까지를 계속 불러나간다. 9. 경강 및 설교(합독, 숙어 풀이, 설교)10. 묵상심고(법회 순에 교도들의 자기참여 시간 부족으로 수행 면은 강조 되지만 신앙 면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시간은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신앙이나 서원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11. 성가(심고가와 설교에 맞는 성가나 신앙심으로 인한 희열감에 찬 곡 선택)12. 공고(주의할 점 : 법회의 분위기가 흐리지 않도록 사회자가 배려해서 공고를 해야 한다.)13. 산회가《 성가31장 》14. 폐회 15. 단모임 순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회 시작전 유의사항으로 1) 사회자는 교역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도가 사회를 볼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 하도록 한다. 2) 법회 시작 30분 혹은 1시간 전부터는 성가 및 대중경 테이프 등을 이용하거나 성가 지도와 좌선과 염불하는 등의 수양시간을 가져 법회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간다. 3) 사회자는 법의를 갖추고 불단에 10분전에 나아가 죽비와 목탁 등 불구의 준비를 확인하고 불단에 향을 사루는 등의 일을 대강 마치고 5분 전에 좌정한다. 고 하였다. 법회 진행 안내로는 1) 법회 시작시간이 되면 사회자는 경종 10타를 한다. 설교자는 경종 타종과 동시에 연사자리에 앉는다. (사회자와 설교자가 구분될 경우에) 2) 개회 : 사회자는 경종 10타 후 사회 석에 나아가 죽비3타로써 개회를 알리고 개회의 말을 간단명료하게 한다. 3) 입정 : 사회 석에서 “입정이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죽비로 신호하고, 1 ~ 3분정도 지난 후 죽비로 출정을 알린다. 4) 독경 : 사회자는 선자세로 사회 석에서 목탁으로 자연스럽게 아침좌선시간에서처럼 운곡을 맞추어 일상수행의 요법과 일원상서원문을 선창하여 독경하도록 하는데 수행을 반조하고 서원을 다지도록 인도한다. 5) 교가 : 독경이 끝날 무렵에 반주자는 피아노(오르겐) 앞에 나아가 있다가

독경이 끝나면 바로 교가 반주를 하게하고 사회자는 “다함께 일어나셔서 성가2장 교가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대중을 인도한다. (이때 사회자는 손짓으로 말없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좋음.)

6) 심고 또는 기도 : 대중은 선자세로 합장하고, 사회자는 사회 석에서 대중을 바라보며 “심고를 올리겠습니다.”또는 “심고를 뒤희겠습니다.” 혹은 “설명기도가 있습니다.”하고 죽비로 시작과 끝을 알린다.

* 설명기도는 항상 시대상황과 법회 분위기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여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 법어봉독 : 법어봉독은 사회자가 선 자세에서 하되 전서나 교전을 눈높이로 올려 합장봉대한 후 “앞으십시오.”하고 대중이 자세를 바꾸면 법어 봉독할 장 . 품과 페이지를 알려주지 않고 경건하게 듣도록 하며 봉독을 마치고 난 후에 대중이 참고하도록 장 . 품을 알려준다.

* 법어봉독은 교역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도회장 등 일반 교도가 하게 될 경우에는 법회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등의 폐단이 없도록 지도한다.

8) 경강 및 설교 : 경강 또는 설교를 하되 설교자는 경강 또는 설교의 내용이 되는 부분을 대중과 함께 읽도록 하기 위하여 페이지와 그 위치를 알려주면 사회자는 대중이 함께 읽도록 인도하여 나간다.

① 경강을 하되 교리에 근거하여 원근적이고 이지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법회분 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도록 현실적 예화나 신앙수행담을 곁들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경강하여 교도들의 생활지표를 제시하여 주도록 한다.(설교식 경강)

② 설교를 하되 전서나 종법사님 법문 등 성현들의 말씀을 인거하여 근본적이고 교훈적인 면을 밝히는 동시에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설교를 한다.(경강식 설교)

* 경강 또는 설교시간은 30 ~ 40분 이내로 하여 너무 짧거나 지루하지 않게 한다.

9) 성가 : 경강 또는 설교의 내용에 맞는 성가 1 ~ 3곡을 불러 경강 또는 설교의 내용이 더욱 살아나도록 한다.

10) 기타

① 월초 법회 시에는 선서문을 읽도록 한다.

② 공지사항 등은 후보나 유인물 또는 게시판과 단회를 활용하도록 하여 법회

흐름을 단절하거나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

③ 단모임은 교화단가를 다함께 자연스럽게 1절만 부르면서 5 ~ 10분 동안 단원출석점검과 의견교환과 질의문답과 공지사항 등을 이야기한다.

④ 교당 구조 등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법회시간에 단모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회 후에 반드시 간단한 단회를 하도록 한다.

11) 성가 : 산회거나 교당의 노래 등 법회 흐름에 맞는 성가를 한 곡 선택하여 부르도록 한다.

12) 폐회 : 사회자는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면서 죽비3타로 폐회를 선언한다.

② 법회식순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원기 78년 3월 10일에 교화연구소 정천경 교무는 원기 71년 7월부터 예회식순이 신앙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어 신앙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전헌배와 설명기도, 일원상 서원문독경이 들어가게 되고 경강이 고유의 독자성을 잃고 설교와 같이 취급하게 되었으며 법의문답이 생략된 법회식순이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된 법회식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회식순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를 연구하였다. 그는 본 연구에서 교단 초기 자료와 교고총간, 그리고 그 동안 발행된 예전을 중심으로 법회에 관련된 내용과 식순을 찾아보고 당시의 법회식순을 진단하면서 좀 더 성숙한 법회식순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1) 예회가 법회로 바뀌면서 성격변화 2) 법회일자 변천과정 3) 법회식순 변천과정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본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하였다.

첫째 문제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법회라는 개념을 대종사 당시부터 불러왔던 예회라는 개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그리할 때 예회 식순에 신앙성도 강조를 할 수가 있고 불교와 차별성도 가져옴과 동시에 독자성을 지닌 우리말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교당들이 꼭 일요일에만 예회를 볼 것이 아니라, 교당상황과 형편에 따라 3, 6일이나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예회를 보도록 하면 다양한 생활(예를 들면 일요일에 자주 있는 애경사)을 하는 교도들이 생활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게 예회를 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히 그렇게 안 된다면 「예전」에 낮에 예회를 보는 교당

에서는 반드시 야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야회를 꼭 개설해서 교도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족시켜주면 교화에 일익을 더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는 대종사님 당대부터 예회 때 실시해온 경강이나 법의문답 또는 감각감상을 발표하는 시간을 예회 때 더욱 무게 있게 다루고 또한, 식순에 첨가해야겠다는 것이다. 경강을 통해서 교리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법의 문답과 감각감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현행 법회식순은 신앙성을 가미한다고 해서 나온 식순인데, 기도식순과 비교를 해보면 흐름이 맞지 않아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는 기원문을 봉독한 뒤 4배복고하고 독경을 하는데 비해 현 법회식순에서는 먼저 불전헌배를 하고 독경을 하고 설명기도를 올리니, 의식에 통일성이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진정으로 예회에 신앙성을 더 하려면 일상수행의 요법을 일상생활의 요법이라 하여 신앙생활도 반조할 수 있도록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본 연구를 통해서 예회라는 우리 고유용어가 법회란 개념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법회일자를 다양하게 예전에 제시를 했음에도 우리들이 이를 십분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야회도 예회를 보는 각 교당에서는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법회식순에서는 초기부터 대대로 내려온 경강이 오늘날 법회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주지 못함을 파악했으며 교도들의 공부를 진작시키는 법의문답과 감상담 발표시간도 식순에서 제외되어 전통을 살리지 못한 식순임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된 내용들을 모두 수렴하여 바람직한 예회식순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성가 → 개회 → 입정 → 설명기도 → 불전헌배 → 심고가 → 교가 → 법어합독 → 경강 → 성가 → 설교 → 법의문답과 감상담 → 일상생활의 요법 → 성가 → 폐회

③ 원불교 법회의식에 관한 연구 발표

원기 97년 9월 4일에 교화연구소 정기 연구발표에서는 원불교 법회의식에 관한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원불교100년 성업에 대종사의 구세경륜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법회의식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할 시대적 요청에 따라 원기 95~97년 교정에서는 교화대불공의 역점사업에 현장교화 활성화 방안으로 법회의식에 관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원불교 교정원에서는 원기 96년 12월 16일에 안민순 교화부원장을 위원장으로 10인의 연구위원(장덕훈, 이장선, 성정진, 조상호, 황성학, 김선명, 고원국, 김제원, 최정윤, 장진수교무)을 위촉하여 법회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위원회에서는 원불교 법회의식의 정체성을 확립과 다양한 법회의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 및 다양한 법회의식 모델 제시로 현장교화를 활성화 하고 법회의식으로 원불교인의 신앙성을 고취시키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원불교 법회의식 형성과 변천과정 고찰(고원국·장진수 교무)과 법회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연구(최정윤 교무) 및 법회식순에 관한 현장 사례 수집 및 분석(조상호 교무)에 대한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원불교 법회의식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법회의식에 관한 출가교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법회의식 현황 실태 분석을 하였으며, 법회식순에 관한 현장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선 교당의 법회 식순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분류하여 현장의 실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2) 자료조사 연구

법회의식에 관련된 선행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기 71년 3월 월간원광 139호 「원불교 신앙을 조명해 본다 - 신앙성을 강화한 법회의식의 모색 -」에 대하여 정현인 교무가 특집으로 기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 원기 72년 1월 월간원광 149호에 「원불교 법회의식」에 대하여 출재가 교도가 특집으로 기고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법회 이대로 좋은가?(김인강), 법회는 교화의 핵이다(김일상), 혼연일체를 이루는 경건과 장엄의 법회(나철중), 미래의 자기를 확신하는 자각의 장(권도갑), 신앙을 통해 인생관 정립(송흥인), 동심의 호기심을 신앙의 뿌리로(이진상)등이다. 이에 대한 원고는 부록에 첨부한다.

2. 법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1. 조사 개요

1. 조사명

법회의식에 연구를 위한 기초 설문(교도용)

2. 조사의 목적

- (1) 현장교회 활성화를 위하여 법회의식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한다.
- (2) 현재 일선 교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회식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현장 교도들의 법회식순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법회의식 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4) 법회의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원불교 법회의식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현장교회의 활성화를 목적한다.
- (5) 법회와 교회단의 관계성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교도들의 요구도에 따른 법회 정체성 모색과 교회단 체제정착을 위한 교회 방안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현장교회의 활성화를 목적한다.

3. 조사기관

원불교 교정원 교화훈련부·교회연구소(정리 최정운 교무)

4. 조사대상

서울교구 14개 교당 교도 전체 대상

5. 조사기간

원기 97년 8월 6일 ~ 8월 20일까지

6. 조사방법

- (1) 법회식순에 대한 현황 및 요구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 기획
- (2) 기존 연구 자료들에 기초하여 설문 문항 완성
- (3) 설문지 발송으로 우편 조사 실시

7. 자료수집

원기 98년 7월 9일 12개교구 70개 교당에 설문지와 반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개별 발송
원기 98년 8월 6일 70개 교당 5,383부 중 서울교구 14개 교당 1,313부 발송
설문지 회수 8월 26일 마감 결과 48개교당 2,077부 중 서울교구 14교당 613부 회수
(각 문항별 무응답 설문은 결측 처리하고 613부 전체 분석함)

8.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함. 설문지는 2쪽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9가지 부분으로 이뤄졌다.

-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급지, 나이, 입교년도, 소재지, 직책)
- ◆ 법회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 ◆ 법회사회 진행자
- ◆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회식순/법회의식 개정의 필요성/법회식순 개정시 보완해야 될 내용
- ◆ 법회외 다른 활동
- ◆ 적절한 법회소요시간
- ◆ 법회의미를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단별 지정좌석
- ◆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실천 정도
- ◆ 교화단과 법회/법회후 단모임/법회시 단회진행/교화단에서의 중요내용/일기/문답감정

9. 자료분석 방법

- 본 조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
- 본 조사는 일선 교당 교도를 대상으로 법회의식 및 교화단에 대한 현황과 요구도를 파악하여 앞으로 법회의식 연구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조사의 자료분석 방법은

첫째,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문항별로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당소재지별, 교화단수별, 교당 창립연도별, 성별로 각 문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조사결과

1. 조사 대상자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별	남	195	31.8	33.1
	여	394	64.3	66.9
	합계	589	96.1	100.0
결측	0	24	3.9	
합계		613	100.0	

서울교구 14개 교당 교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613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33.1%, 여성이 66.9%로 여성이 두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교구 14개교당 원기 97년 연평균 법회 출석 성별 분포가 남성 329명(33.4%), 여성 657명(66.6%)과 비교해 볼 때 남성 교도는 31.8%가 응답하였고, 여성 교도 64.3%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당급지

급지(교당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당급지	특급지(2)	245	40.0	40.0
	1급지(4)	185	30.2	30.2
	2급지(2)	57	9.3	9.3
	3급지(3)	34	5.5	5.5
	4급지(2)	40	6.5	6.5
	5급지(2)	52	8.5	8.5
	6급지(0)			
	합계		100.0	100.0
결측	0			
합계		613	100.0	

응답자들이 소속한 교당의 급지 분포는 특급지가 4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3급지가 5.5%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③ 나이 그룹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이	40세이하	45	7.3	7.7
	41~50세	82	13.4	14.0
	51~60세	191	31.2	32.5
	61~70세	163	26.6	27.8
	71세~	106	17.3	18.1
	합계	587	95.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6	4.2	
합계		613	100.0	

응답자들의 나이는 51~60세 그룹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세이하 그룹이 7.7%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④ 입교연도 그룹

입교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	----	-----	--------

입교연도	70년이전	273	44.5	55.8
	71~80년	70	11.4	14.3
	81~90년	46	7.5	9.4
	91년이후	100	16.3	20.4
	합계	489	7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4	20.2	
합계		613	100.0	

응답자들의 입교연도는 월기 70년 이전 그룹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기 81~90년 그룹이 9.4%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⑤ 교당소재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당소재지	대도시	561	91.5	91.5
	중소도시	52	8.5	8.5
	농어촌			100.0
	합계			
결측	0			
합계		613	100.0	

응답자들이 소속된 교당 소재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91.5%, 중소도시 8.5%로 나타났다.

2. 종합 분석 결과

1)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표 1-1> 현재 교당 법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 중점	법의 강론	363	59.2	67.3
	법의 훈련	72	11.7	13.4
	신앙	96	15.7	17.8
	기타	8	1.3	1.5
결측	시스템 결측값	74	12.1	100.0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과 같이 응답자들이 현재 교당 법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법의 강론이 67.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신앙이 17.8%, 법의훈련이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1.5%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1-2> 법회 사회는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 사회자	출가(교무)	95	15.5	16.1
	재가(교도)	495	80.8	83.9
	합계	590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3.8	
합계		613	100.0	

위의 <표 1-2>와 같이 응답자들의 교당 법회 사회는 83.9%가 재가 교도가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1%는 출가 교무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식순 중요도	불전헌배	25	4.1	5.1
	입정	20	3.3	4.0
	독경	27	4.4	5.5
	성가	3	.5	.6
	설명기도	11	1.8	2.2

	법어봉독	16	2.6	3.2
	일상수행의 요법	12	2.0	2.4
	설교	380	62.0	76.9
	합계	494	80.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9	19.4	
	합계	613	100.0	

위의 <표 1-3>과 같이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회직군은 설교가 76.9%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독경(5.5%), 불전헌배(5.1%), 입장(4%), 법어봉독(3.2%), 설명기도(2.2%), 성가(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설교 내용 실천	전혀 안함	1	.2	.2
	거의 안함	19	3.1	3.2
	약간 함	261	42.6	43.5
	상당히 함	279	45.5	46.5
	매우 잘함	40	6.5	6.7
	합계	600	9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1	
	합계	613	100.0	

위의 <표 1-4>와 같이 응답자들이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상당히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46.5%,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전체 53.2% 법회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 만족도	매우 불만족	16	2.6	2.7
	불만족	5	.8	.8
	보통	106	17.3	17.6
	만족	324	52.9	53.9
	매우만족	150	24.5	25.0
	합계	601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2.0	

합계	613	100.0	
----	-----	-------	--

위의 <표 1-5>와 같이 응답자들이 매주 교당 법회에 대하여 53.9% 만족하는 것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25%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78.8%가 매주 교당 법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식순 개정	예	156	25.4	26.5
	아니오	433	70.6	73.5
	합계	589	96.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3.9	
합계		613	100.0	

위의 <표 1-6>과 같이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73.5%로 나타났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6.5%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1-7>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식순 개정시 보완할 내용	문답감정	142	23.2	35.7
	강연	71	11.6	17.8
	경강	58	9.5	14.6
	감상담	80	13.1	20.1
	기타	47	7.7	11.8
	합계	398	64.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5	35.1	
합계		613	100.0	

위의 <표 1-7>과 같이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될 내용으로 문답감정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상담 20.1%, 강연, 17.8%, 경강 1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좌선 및 교리공부에 대하여 11.8%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	의식	68	11.1	12.2

	훈련	95	15.5	17.0
	설교	331	54.0	59.2
	문답감정	54	8.8	9.7
	기타	11	1.8	2.0
	합계	559	91.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4	8.8	
합계		613	100.0	

위의 <표 1-8>과 같이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설교가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훈련 17%, 의식 12.2%, 문답감정 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상적인 법회 소요시간	1시간	208	33.9	34.7
	1시간 30분	316	51.5	52.8
	2시간	69	11.3	11.5
	기타	6	1.0	1.0
	합계	599	97.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2.3	
합계		613	100.0	

위의 <표 1-9>와 같이 응답자 중 이상적인 법회 소요시간으로는 1시간 30분이 52.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1시간이 34.7%, 2시간이 11.5%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1-10>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당 형태	좌식(방석)	67	10.9	11.2
	입식(의자)	384	62.6	64.0
	혼용(의자+방석)	140	22.8	23.3
	기타	9	1.5	1.5
	합계	600	9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1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0>과 같이 응답자 중 법회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로는 입식이 6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혼용(의자+방석)이 23.3%, 좌식이 11.2%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1-11> 교도님께서서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실천정도	전혀 안함	50	8.2	9.1
	연1회	24	3.9	4.4
	연2회	37	6.0	6.8
	매월1회	104	17.0	19.0
	매주1회	141	23.0	25.8
	수시로	191	31.2	34.9
	합계	547	8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6	10.8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1>과 같이 응답자 중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실천에 있어서 34.9%가 수시로 실천하고 있으며, 25.8%가 매주 1회 실천하고, 19%가 매월 1회 실천하며, 6.8%가 연 2회, 4.4%가 연1회 순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9.1%가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하였다.

<표 1-12>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법회외 다른 활동	없음	144	23.5	28.0
	교화단회	227	37.0	44.1
	야회	14	2.3	2.7
	공부방	37	6.0	7.2
	선방	48	7.8	9.3
	기타	45	7.3	8.7
	합계	515	8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8	16.0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2>와 같이 응답자 중 현재 교당에서 법회외 다른 활동으로는 교화단회가 44.1%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선방(9.3%), 기타(8.7%) 활동으로

는 합창단, 봉사활동 등이며, 야회(2.7%)순으로 나타났으며, 28%은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화단 지정 좌석	예	210	34.3	35.0
	아니오	390	63.6	65.0
	합계	600	9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1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3>과 같이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에 대해서는 65%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35%의 응답자만 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주 법회 후 단모임	예	168	27.4	28.1
	아니오	430	70.1	71.9
	합계	59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5	2.4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4>와 같이 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는 응답자는 28.1%로 의 응답비율로 낮게 나타났으며, 71.9%는 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1-15> 매월 1회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일요법회시간에 교화단회 실시	예	439	71.6	73.9
	아니오	155	25.3	26.1
	합계	594	96.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	3.1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5>와 같이 매월 1회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73.9%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을 나타냈고, 26.1%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교화단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화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친애	222	36.2	42.8
	공부	117	19.1	22.5
	교화	91	14.8	17.5
	훈련	32	5.2	6.2
	의견제출	49	8.0	9.4
	기타	8	1.3	1.5
	합계	519	84.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4	15.3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6>과 같이 응답자 중 교화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친애가 42.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공부 22.5%, 교화 17.5%, 의견제출 9.4%, 훈련 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7>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와 교화단 상시·정기 일기를 별도로 나눈 것에 만족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화단교재와 일기 분리 만족도	예	399	65.1	67.6
	아니오	191	31.2	32.4
	합계	590	96.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3.8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7>과 같이 응답자 중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와 교화단 상시·정기일기를 별도로 나눈 것에 대하여 67.6%가 만족하다는 응답비율을 보였고, 32.4%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18> 교도님께서는 교화단회를 통해서 문답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화단회시 문답감정 이행정도	전혀 안함	58	9.5	10.4
	연1회	21	3.4	3.8
	연2회	35	5.7	6.3
	매월1회	277	45.2	49.6
	매주1회	47	7.7	8.4
	수시로	120	19.6	21.5
	합계	558	91.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5	9.0	
합계		613	100.0	

위의 <표 1-18>과 같이 응답자 중 교화단회시 문답감정이 충분히 이루어 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월 1회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시로 21.5%, 매주 1회

8.4%, 연2회 6.3%, 연 1회 3.8% 순으로 나타났으며, 10.4%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2) 교차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

<1-0> 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별	남	195	31.8	33.1
	여	394	64.3	66.9
	합계	589	96.1	100.0
결측	0	24	3.9	
합계		613	100.0	

<1-1> 성별*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십니까?

교도성별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		전체	χ^2
	예	아니오		
남	52(27.2%)	139(72.8%)	191(100%)	.007
여	149(38.7%)	236(61.3%)	385(100%)	
전체	201(34.9%)	375(65.1%)	576(100%)	<i>df=1</i>

위의 <표 1-1>에서와 같이 191명의 남자교도에 대하여 법회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52명(27.2%), 원하지 않는 경우는 139명(72.8%)이다. 385명의 여자교도에 대하여 법회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149명(38.7%), 원하지 않는 경우는 236명(61.3%)이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 .007(df=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따라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성별*매월 1회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성별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전체	χ^2
	예	아니오		
남	151(79.5%)	39(20.5%)	191(100%)	.034
여	271(71.1%)	110(28.9%)	381(100%)	
전체	422(73.9%)	149(26.1%)	571(100%)	<i>df=1</i>

위의 <표 1-2>에서와 같이 191명의 남자교도에 대하여 매월1회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51명(79.5%),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9명(20.5%)이다. 381명의 여자 교도에 대하여 매월 1회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271명(71.1%),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10명(28.9%)이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매월1회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하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34(df=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매월 1회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당 급지별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

<표 2-0> 교당급지별

급지(교당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교당급지	특급지(2)	245	40.0	40.0
	1급지(4)	185	30.2	30.2
	2급지(2)	57	9.3	9.3
	3급지(3)	34	5.5	5.5
	4급지(2)	40	6.5	6.5
	5급지(2)	52	8.5	8.5
	6급지(0)			
	합계		100.0	100.0
결측	0			

합계	613	100.0	
----	-----	-------	--

<표 2-1> 교당급지별*현재 교당 법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당급지별	현재 교당 법회는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				전체	χ^2
	법의 강론	법의 훈련	신앙	기타		
특급지	145(68.7%)	22(10.4%)	41(19.4%)	3(1.4%)	211(100%)	.019
1급지	107(66.9%)	23(14.4%)	29(18.1%)	1(0.6%)	160(100%)	
2급지	38(71.7%)	8(15.1%)	5(9.4%)	2(3.8%)	53(100%)	
3급지	25(73.5%)	4(11.8%)	5(14.7%)	0(0%)	34(100%)	
4급지	12(38.7%)	5(16.1%)	13(41.9%)	1(3.2%)	31(100%)	
5급지	36(72%)	10(20%)	3(6.0%)	1(2.0%)	50(100%)	
전체	363(67.3%)	72(13.4%)	93(17.8%)	8(1.5%)	539(100%)	<i>df=15</i>

위의 <표 2-1>에서와 같이 특급지 211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 법회에서 법의 강론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145명(68.7%), 신앙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41명(19.4%), 법의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22명(10.4%), 기타 3명(1.4%)이다.

1급지 160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 법회에서 법의 강론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107명(66.9%), 신앙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29명(18.1%), 법의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23(14.4%), 기타 1명(0.6%)이다.

2급지 53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 법회에서 법의 강론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38명(71.7%), 법의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8명(15.1%), 신앙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5명(9.4%), 기타 2명(3.8%)이다.

3급지 31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 법회에서 법의 강론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25명(73.5%), 신앙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13명(41.9%), 법의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4(11.8%)이다.

4급지 34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 법회에서 법의 강론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12명(38.7%), 신앙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5명(14.7%), 법의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5명(16.1%), 기타 1명(3.2%)이다.

5급지 50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 법회에서 법의 강론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36명(72%), 법의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10명(20%), 신앙에 중점을 둔다는 경우는 3명(6.0%), 기타 2명(2.0%)이다.

교당급지별에 따라서 현재 교당 법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현재 교당 법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19(df=1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교당 급지에 따라서 현재 교당 법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는 교당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 교당급지별*법회 사회는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당급지별	법회 사회는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χ^2
	출가	재가		
특급지	30(12.9%)	203(87.1%)	233(100%)	.029
1급지	26(14.4%)	155(85.6%)	181(100%)	
2급지	8(14.8%)	46(85.2%)	54(100%)	
3급지	11(32.4%)	23(67.6%)	34(100%)	
4급지	7(18.9%)	30(81.1%)	37(100%)	
5급지	13(25.5%)	38(74.5%)	51(100%)	
전체	95(16.1%)	495(83.9%)	590(100%)	

위의 <표 2-2>에서와 같이 특급지 233명에 대하여 법회 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재가 203명(87.1%), 출가 30명(12.9%)이다.

1급지 181명에 대하여 법회 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재가 155명(85.6%), 출가 26명(14.4%)이다.

2급지 54명에 대하여 법회 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재가 46명(85.2%), 출가 8명(14.8%)이다.

3급지 34명에 대하여 법회 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

는 재가 23명(67.6%), 출가 11명(32.4%)이다.

4급지 37명에 대하여 법회 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재가 30명(81.1%), 출가 7명(18.9%)이다.

5급지 51명에 대하여 법회 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재가 38명(74.5%), 출가 13명(25.5%)이다.

교당급지별에 따라서 법회 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법회 사회자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29(df=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교당 급지에 따라서 법회사회를 누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교당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3> 교당급지별*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당급지별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불전헌배	입정	독경	성가	설명기도	법어봉독	일상수행의요법	설교		
특급지	1(1.9%)	4(1.9%)	5(2.4%)	1(0.5%)	5(2.4%)	3(1.4%)	6(2.9%)	181(86.6%)	209(100%)	.004
1급지	8(6.1%)	8(6.1%)	13(9.9%)	1(0.8%)	1(0.8%)	3(2.3%)	1(0.8%)	96(73.3%)	131(100%)	
2급지	7(14.0%)	3(6.0%)	3(6.0%)	1(2.0%)	1(2.0%)	3(6.0%)	2(4.0%)	30(60%)	50(100%)	
3급지	1(3.6%)	0(0%)	0(0%)	0(0%)	1(3.6%)	1(3.6%)	0(0%)	25(89.3%)	28(100%)	
4급지	1(3.4%)	3(10.3%)	4(13.8%)	0(0%)	2(6.9%)	2(6.9%)	1(3.4%)	16(55.2%)	29(100%)	
5급지	4(8.5%)	2(4.3%)	2(4.3%)	0(0%)	1(2.1%)	4(8.5%)	2(4.3%)	32(68.1%)	47(100%)	
전체	25(5.1%)	20(4.0%)	27(5.5%)	3(0.6%)	11(2.2%)	16(3.2%)	12(2.4%)	380(76.9)	494(100%)	df=35

위의 <표 2-3>에서와 같이 특급지 209명에 대하여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설교 181명(86.6%), 일상수행의 요법 6명(2.9%), 설명기도와 독경 각각 5명(2.4%), 불전헌배와 입정 각각 1명(1.9%), 법어봉독 3명(1.4%), 성가 1명(0.5%)이다.

1급지 131명에 대하여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설교 96명(73.3%), 독경 13명(9.9%), 불전헌배와 입정 각각 8명(6.1%), 법어봉독3명(2.3%), 일상수행의 요법과 성가 그리고 설명기도와 독경 각각 1명(0.8%)이다.

2급지 50명에 대하여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설교 30명(60%), 불전헌배 7명(14.0%), 입정과 독경과 법어봉독이 각각 3명(6.0%), 일상수행의 요법 2명(4.0%), 성가와 설명기도 1명(2.0%)이다.

3급지 28명에 대하여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설교 25명(89.3%), 불전헌배와 설명기도 그리고 법어봉독 각각 1명(3.6%)이다.

4급지 29명에 대하여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설교 16명(55.2%), 독경 4명(13.8%), 입정 3명(10.3%), 설명기도와 법어봉독 각각 2명(6.9%), 불전헌배와 일상수행의 요법 1명(3.4%)이다.

5급지 47명에 대하여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경우는 설교 32명(68.1%), 입정과 독경과 일상수행의 요법 2명(4.3%)이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법회식순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법회식순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4(df=3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법회식순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교당 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교당급지별*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당급지별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체	χ^2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특급지	4(1.7%)	1(0.4%)	38(15.9%)	139(58.2%)	57(23.8%)	229(100%)	.002
1급지	2(1.1%)	2(1.1%)	39(21.7%)	94(52.2%)	43(23.9%)	180(100%)	
2급지	2(3.5%)	0(0%)	8(14%)	28(49.1%)	19(33.3%)	57(100%)	
3급지	1(2.9%)	0(0%)	6(17.6%)	21(61.8%)	6(17.6%)	34(100%)	

4급지	0(0%)	1(2.6%)	9(23.1%)	22(56.4%)	7(17.9%)	39(100%)	df=20
5급지	7(13.5%)	1(1.9%)	6(11.5%)	20(38.5%)	18(34.6%)	52(100%)	
전체	16(2.7%)	5(0.8%)	106(17.6%)	324(53.9%)	150(25%)	601(100%)	

위의 <표 2-4>에서와 같이 특급지 229명에 대하여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경우는 매우만족 57명(23.8%), 만족 139명(58.2%), 보통 38명(15.9%), 불만족 1명(0.4%), 매우불만족 4명(1.7%)이다.

1급지 180명에 대하여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경우는 매우만족 43명(23.9%), 만족 94명(52.2%), 보통 39명(21.7%) , 불만족 2명(1.1%), 매우 불만족 2명(1.1%)이다.

2급지 57명에 대하여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경우는 매우만족 19명(33.3%), 만족28명(49.1%) , 보통 8명(14%) , 매우 불만족 2명(3.5%)이다.

3급지 34명에 대하여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경우는 매우만족 6명(17.6%), 만족 21명(61.8%), 보통 9명(23.1%), 매우 불만족 1명(2.9%)이다.

4급지 39명에 대하여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경우는 매우만족 7명(17.9%), 만족 22명(56.4%), 보통 39명(21.7%) , 불만족 1명(2.6%)이다.

5급지 52명에 대하여 매주 교당법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경우는 매우만족 18명(34.6%), 만족 20명(38.5%), 보통 6명(11.5%), 불만족 1명(1.9%), 매우불만족 7명(13.5%)이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매주 교당 법회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매주 교당법회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2(df=2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매주 교당 법회에 만족하는지는 교당 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5> 교당급지별*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은?

교당급지별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은?					전체	χ^2
	문답감정	강연	경강	감상담	기타		

특급지	53(38.7%)	13(9.5%)	18(13.1%)	29(21.2%)	24(17.5%)	137(100%)	.004
1급지	52(37.1%)	26(18.6%)	28(20%)	26(18.6%)	8(5.7%)	140(100%)	
2급지	18(46.2%)	8(20.5%)	3(7.7%)	4(10.3%)	6(15.4%)	39(100%)	
3급지	3(17.6%)	6(35.3%)	4(23.5%)	3(17.6%)	1(5.9%)	17(100%)	
4급지	6(24%)	6(24%)	2(8%)	6(24%)	5(20%)	25(100%)	
5급지	10(25%)	12(30%)	3(7.5%)	12(30%)	3(7.5%)	40(100%)	
전체	142(35.7%)	71(17.8%)	58(14.6%)	80(20.1%)	47(11.8%)	398(100%)	df=20

위의 <표 2-5>에서와 같이 특급지 137명에 대하여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의 경우는 문답감정 53명(38.7%), 감상담 29명(21.2%), 경강 18명(13.1%), 강연 13명(9.5%), 기타 24명(17.5%)이다.

1급지 140명에 대하여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의 경우는 문답감정 52명(37.1%), 경강 28명(20%), 강연과 감상담 각각 26명(18.6%), 기타 8명(5.7%)이다.

2급지 39명에 대하여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의 경우는 문답감정 18명(46.2%), 강연 8명(20.5%), 기타 6명(15.4%), 감상담 4명(10.3%), 경강 3명(7.7%)이다.

3급지 17명에 대하여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의 경우는 강연 6명(35.3%), 문답감정과 감상담 각각 6명(24%), 이다.

4급지 25명에 대하여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의 경우는 문답감정과 강연과 감상담이 각각 3명(17.6%), 기타 5명(20%), 경강 2명(8%)이다.

5급지 40명에 대하여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의 경우는 강연과 감상담 각각 12명(30%), 문답감정 10명(25%), 경강과 기타 3명(7.5%)이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될 내용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법회식순 개정시 보완해야할 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4(df=2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법회식순을 개정할 경우 보완해야 될 내용에 따라 교당 급지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6> 교당급지별*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교당급지별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할 것은?					전체	χ^2
	의식	훈련	설교	문답감정	기타		

특금지	21(9.4%)	35(15.7%)	141(63.2%)	20(9%)	6(2.7%)	223(100%)	.047
1금지	19(11%)	30(17.3%)	106(61.3%)	17(9.8%)	1(0.6%)	173(100%)	
2금지	7(13%)	10(18.5%)	26(48.1%)	8(14.8%)	3(5.6%)	54(100%)	
3금지	4(12.5%)	6(18.8%)	21(65.6%)	1(3.1%)	0(0%)	32(100%)	
4금지	5(14.3%)	3(8.6%)	21(60%)	5(14.3%)	1(2.9%)	35(100%)	
5금지	12(28.6%)	11(26.2%)	16(38.1%)	3(7.1%)	0(0%)	42(100%)	
전체	68(12.2%)	95(17%)	331(59.2%)	54(9.7%)	11(2%)	559(100%)	df=20

위의 <표 2-6>에서와 같이 특금지 223명에 대하여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의 경우는 설교 141명(63.2%), 훈련 35명(15.7%), 의식 21명(9.4%), 문답감정 20명(9%), 기타 6명(2.7%)이다.

1금지 173명에 대하여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의 경우는 설교 106명(61.3%), 훈련 30명(17.3%), 의식 19명(11%), 문답감정 17명(9.8%), 기타 1명(0.6%)이다.

2금지 54명에 대하여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의 경우는 설교 26명(48.1%), 훈련 10명(18.5%), 문답감정 8명(14.8%), 의식 7명(13%), 기타 3명(5.6%)이다.

3금지 32명에 대하여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의 경우는 설교 21명(60%), 훈련 6명(18.8%), 의식 4명(12.5%), 문답감정 1명(3.1%)이다.

4금지 35명에 대하여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의 경우는 설교 21명(60%), 의식과 문답감정 각각 5명(14.3%), 훈련 3명(8.6%), 기타 1명(2.9%)이다.

5금지 42명에 대하여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의 경우는 설교 16명(38.1%), 의식 12명(28.6%), 훈련 11명(26.2%), 문답감정 3명(7.1%)이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47(df=2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원불교 법회의식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에 교당 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교당급지별*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교당급지별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은?				전체	χ^2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기타		
특급지	57(23.8%)	136(56.9%)	44(18.4%)	2(0.8%)	239(100%)	.000
1급지	58(31.9%)	104(57.1%)	18(9.9%)	2(1.1%)	182(100%)	
2급지	21(38.2%)	32(58.2%)	1(1.8%)	1(1.8%)	55(100%)	
3급지	19(57.6%)	14(42.4%)	0(0%)	0(0%)	33(100%)	
4급지	26(66.7%)	10(25.6%)	2(5.1%)	1(2.6%)	39(100%)	
5급지	27(52.9%)	20(39.2%)	4(7.8%)	0(0%)	51(100%)	
전체	208(34.7%)	316(52.8%)	69(11.5%)	6(1.0%)	599(100%)	<i>df=15</i>

위의 <표 2-7>에서와 같이 특급지 239명에 대하여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의 경우는 1시간 30분 136명(56.9%), 1시간 57명(23.8%), 2시간 44명(18.4%), 기타 2명(0.8%)이다.

1급지 182명에 대하여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의 경우는 1시간 30분 104명(57.1%), 1시간 58명(31.9%), 2시간 18명(9.9%), 기타 2명(1.1%)이다.

2급지 55명에 대하여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의 경우는 1시간 30분 32명(58.2%), 1시간 21명(38.2%), 2시간 1명(1.8%), 기타 1명(2.6%)이다.

3급지 33명에 대하여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의 경우는 1시간 30분 14명(42.4%), 1시간 19명(57.6%)이다.

4급지 39명에 대하여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의 경우는 1시간 26명(66.7%), 1시간 30분 10명(25.6%), 2시간 4명(7.8%)이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1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이상적인 법회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은 교당 급지에 따라 차이가 확실하

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8> 교당급지별*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당급지별	법회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전체	χ^2
	좌식	입식	혼용	기타		
특급지	13(5.4%)	182(76.2%)	39(16.3%)	5(2.1%)	239(100%)	.000
1급지	19(9.9%)	125(69.1%)	38(21%)	0(0%)	181(100%)	
2급지	4(7%)	32(56.1%)	18(31.6%)	3(5.3%)	57(100%)	
3급지	8(23.5%)	18(52.9%)	8(23.5%)	0(0%)	34(100%)	
4급지	10(25.6%)	10(25.6%)	18(46.2%)	1(2.6%)	39(100%)	
5급지	14(28%)	17(34%)	19(38%)	0(0%)	50(100%)	
전체	67(11.2%)	384(64%)	140(23.3%)	9(1.5%)	600(100%)	<i>df=15</i>

위의 <표 2-8>에서와 같이 특급지 239명에 대하여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의 경우 입식 182명(76.2%), 혼용 39명(16.3%), 좌식 13명(5.4%), 기타 5명(2.1%)이다

1급지 181명에 대하여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의 경우 입식 125명(69.1%), 혼용 38명(21%), 좌식 19명(9.9%)이다.

2급지 57명에 대하여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의 경우 입식 32명(56.1%), 혼용 18명(31.6%), 좌식 4명(7%), 기타 3명(5.3%)이다.

3급지 34명에 대하여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의 경우 입식 18명(52.9%), 좌식과 혼용 각각 8명(23.5%)이다.

4급지 39명에 대하여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의 경우 혼용 18명(46.2%), 입식과 좌식 각각 10명(25.6%), 기타 1명(2.6%)이다.

5급지 50명에 대하여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의 경우 혼용 19명(38%), 입식 17명(34%), 좌식 14명(28%)이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법회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법회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형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15)$ 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법회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형태는 교당 급지에 따라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9> 교당급지별*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당급지 별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전체	χ^2
	없음	교회단회	야회	공부방	선방	기타		
특급지	39(20.7%)	79(42%)	0(0%)	15(8%)	33(17.6%)	22(11.7%)	188(100%)	.000
1급지	46(28.2%)	82(50.3%)	10(6.1%)	8(4.9%)	12(7.4%)	5(3.1%)	163(100%)	
2급지	16(32%)	20(40%)	2(4%)	9(18%)	1(2%)	2(4%)	50(100%)	
3급지	12(36.4%)	12(36.4%)	0(0%)	0(0%)	1(3%)	8(24.2%)	33(100%)	
4급지	18(48.6%)	15(40.5%)	0(0%)	1(2.7%)	0(0%)	3(8.1%)	37(100%)	
5급지	13(29.5%)	19(43.2%)	2(4.5%)	4(9.1%)	1(2.3%)	5(11.4%)	44(100%)	
전체	144(28%)	227(44.1%)	14(2.7%)	37(7.2%)	48(9.3%)	45(8.7%)	515(100%)	$df=25$

위의 <표 2-9>에서와 같이 특급지 188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의 경우는 교회단회 79명(42%), 없음 39명(20.7%), 선방 33명(17.6%), 기타 22명(11.7%), 공부방 15명(8%)이다.

1급지 188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의 경우는 교회단회 82명(50.3%), 없음 46명(28.2%), 선방 12명(7.4%), 야회 10명(6.1%), 공부방 8명(4.9%), 기타 5명(3.1%)이다.

2급지 50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의 경우는 교회단회 20명(40%), 없음 16명(32%), 공부방 9명(18%), 선방 1명(2%)이다.

3급지 33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의 경우는 교회단회와 없음 각각 12명(36.4%), 기타 8명(24.2%), 선방 1명(2%)이다.

4급지 37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의 경우는 없음 18명(48.6%), 교회단회 15명(40.5%), 기타 3명(8.1%), 공부방 1명(2.7%)이다.

5급지 44명에 대하여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의 경우는 없음 18명(48.6%), 교회단회 15명(40.5%), 기타 3명(8.1%), 공부방 1명(2.7%)이

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2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교당 급지에 따라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0> 교당급지별*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십니까?

교당급지별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좌석을 원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특급지	110(45.8%)	130(54.2%)	240(100%)	.000
1급지	79(43.6%)	102(56.4%)	181(100%)	
2급지	7(12.5%)	49(87.5%)	56(100%)	
3급지	5(15.2%)	28(84.8%)	33(100%)	
4급지	2(5.1%)	37(94.9%)	39(100%)	
5급지	7(13.7%)	44(86.3%)	51(100%)	
전체	210(35%)	390(65%)	600(100%)	$df=5$

위의 <표 2-10>에서와 같이 특급지 240명에 대하여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110명(45.8%), 원하지 않는 경우는 130명(54.2%)이다.

1급지 181명에 대하여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79명(43.6%), 원하지 않는 경우는 102명(56.4%)이다.

2급지 56명에 대하여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7명(12.5%), 원하지 않는 경우는 49명(87.5%)이다.

3급지 33명에 대하여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5명(15.2%), 원하지 않는 경우는 28명(84.8%)이다.

4급지 39명에 대하여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2명(5.1%), 원하지 않는 경우는 37명(94.9%)이다.

5급지 51명에 대하여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 경우는 7명

(13.7%), 원하지 않는 경우는 7명(13.7%)이다.

교당급지에 따라서 교당 법회시 교화단별 지정좌석을 원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좌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좌석을 원하는지는 교당 급지에 따라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1> 교당급지별* 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십니까?

교당급지별	매주 법회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특급지	71(29.7%)	168(70.3%)	239(100%)	.046
1급지	59(32.8%)	121(67.2%)	180(100%)	
2급지	16(28.6%)	40(71.4%)	56(100%)	
3급지	5(14.7%)	29(85.3%)	34(100%)	
4급지	4(10.5%)	34(89.5%)	38(100%)	
5급지	13(25.5%)	38(74.5%)	51(100%)	
전체	168(28.1%)	430(71.9%)	698(100%)	$df=5$

위의 <표 2-11>에서와 같이 교당급지에 따라서 매주 법회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매주 법회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46(df=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교당 급지에 따라서 매주 법회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2> 교당급지별*교화단회를 통해서 문답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당급지별	교화단회를 통해서 문답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χ^2
	전혀안 됨	연1회	연3회	매월1회	매주1회	수시로		
특급지	24(10.7%)	6(2.7%)	17(7.6%)	121(53.8%)	14(6.2%)	43(19.1%)	225(100%)	.036
1급지	13(7.4%)	8(4.5%)	7(4%)	80(45.5%)	23(13.1%)	45(25.6%)	176(100%)	

2급지	7(13.7%)	3(5.9%)	3(5.9%)	22(43.1%)	6(11.8%)	10(19.6%)	51(100%)	
3급지	5(15.6%)	0(0%)	5(15.6%)	18(56.3%)	2(6.3%)	2(6.3%)	32(100%)	
4급지	6(17.1%)	3(8.6%)	1(2.9%)	17(48.6%)	2(5.7%)	6(17.1%)	35(100%)	
5급지	3(7.7%)	1(2.6%)	2(5.1%)	19(48.7%)	0(0%)	14(35.9%)	39(100%)	
전체	58(10.4%)	21(3.8%)	35(6.3%)	277(49.6%)	47(8.4%)	120(21.5%)	558(100%)	df=25

위의 <표 2-12>에서와 같이 교당급지에 따라서 교화단회를 통해서 문답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하여 교당 급지를 독립변인으로, 매주 교화단회를 통해서 문답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36(df=2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교당 급지에 따라서 교화단회를 통해서 문답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나이그룹별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

<표 3-0> 나이 그룹별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나이	40세이하	45	7.3	7.7
	41~50세	82	13.4	14.0
	51~60세	191	31.2	32.5
	61~70세	163	26.6	27.8
	71세~	106	17.3	18.1
	합계	587	95.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6	4.2	
합계		613	100.0	

<표 3-1> 나이 그룹별* 범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그룹 별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불전헌배	입정	독경	성가	설명기도	범어봉독	일상수행 의요법	설교		
40세 이하	0(0%)	5(13.2%)	4(10.5%)	0(0%)	0(0%)	1(2.6%)	0(0%)	28(73.7%)	38(100%)	.011
41~ 50세	1(1.4%)	4(5.6%)	7(9.7%)	0(0%)	2(2.8%)	1(1.4%)	4(5.6%)	53(73.6%)	72(100%)	
51~ 60세	4(2.5%)	7(4.4%)	4(2.5%)	2(1.3%)	4(2.5%)	4(2.5%)	4(2.5%)	131(81.9%)	160(100%)	
61~ 70세	10(8.1%)	3(2.4%)	8(6.5%)	0(0%)	2(1.6%)	2(1.6%)	3(2.4%)	96(77.4%)	124(100%)	
71 세~	8(9.6%)	0(0%)	4(4.8%)	1(1.2%)	3(3.6%)	6(7.2%)	1(1.2%)	60(72.3%)	83(100%)	
전체	23(4.8%)	19(4%)	27(5.7%)	3(0.6%)	11(2.3%)	14(2.9%)	12(2.5%)	368(77.1%)	477(100%)	df=28

위의 <표 3-1>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에 따라서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로,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11(df=2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에 따라서 법회식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 나이 그룹별*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나이 그룹 별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체	χ^2
	전혀 안함	거의 안함	약간 함	상당히 함	매우 잘함		
40세 이하	1(2.3%)	5(11.4%)	33(75%)	4(9.1%)	1(2.3%)	44(100%)	.000
41~ 50세	0(0%)	5(6.3%)	49(61.3%)	26(32.5%)	0(0%)	80(100%)	
51~ 60세	0(0%)	5(2.6%)	84(44.5%)	88(46.3%)	13(6.8%)	190(100%)	
61~ 70세	0(0%)	0(0%)	57(35%)	98(60.1%)	8(4.9%)	163(100%)	
71 세~	0(0%)	4(4%)	27(27%)	54(54%)	15(15%)	100(100%)	

전체	1(0.2%)	19(3.3%)	250(43.3%)	270(46.8%)	37(6.4%)	577(100%)	$df=16$
----	---------	----------	------------	------------	----------	-----------	---------

위의 <표 3-2>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로 따라서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로,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16)$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로 따라서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지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3> 나이 그룹별*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그룹별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40세이하	7(16.3%)	36(83.7%)	43(100%)	.032
41~50세	16(20.3%)	63(79.7%)	79(100%)	
51~60세	60(32.4%)	125(67.6%)	185(100%)	
61~70세	44(28%)	113(72%)	157(100%)	
71세~	19(18.8%)	82(81.2%)	101(100%)	
전체	146(25.8%)	419(74.2%)	565(100%)	$df=4$

위의 <표 3-3>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로 따라서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

로,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32(df=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에 따라서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4> 나이 그룹별*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그룹별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전체	χ^2
	좌식	입식	혼용	기타		
40세이하	3(6.8%)	29(65.9%)	12(27.3%)	0(0%)	44(100%)	.000
41~50세	13(15.9%)	38(46.3%)	29(35.4%)	2(2.4%)	80(100%)	
51~60세	27(14.3%)	107(56.6%)	53(28%)	2(1.1%)	190(100%)	
61~70세	10(6.3%)	122(76.3%)	27(16.9%)	1(0.6%)	163(100%)	
71세~	10(10%)	73(73%)	14(14%)	3(3%)	100(100%)	
전체	63(11%)	369(64.2%)	135(23.5%)	8(1.4%)	577(100%)	$df=12$

위의 <표 3-4>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에 따라서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로,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1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에 따라서 법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법당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5> 나이 그룹별*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그룹 별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체	χ^2
	전혀 안함	연1회	연2회	매월1회	매주1회	수시로		
40세 이하	7(18.4%)	3(7.9%)	8(21.1%)	7(18.4%)	8(21.1%)	5(13.2%)	44(100%)	.000
41~ 50세	16(21.9%)	2(2.7%)	5(6.8%)	20(27.4%)	20(27.4%)	10(100%)	80(100%)	
51~ 60세	10(5.9%)	7(4.1%)	14(8.2%)	34(20%)	45(26.5%)	60(35.3%)	190(100%)	
61~ 70세	14(9.3%)	4(2.7%)	8(5.3%)	25(16.7%)	39(26%)	60(40%)	163(100%)	

71세~	3(3.1%)	5(5.2%)	1(1.0%)	14(14.6%)	26(27.1%)	47(49%)	100(100%)	
전체	50(9.5%)	21(4.0%)	36(6.8%)	100(19%)	138(26.2%)	182(34.5%)	577(100%)	df=20

위의 <표 3-5>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에 따라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2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에 따라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6> 나이 그룹별*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 그룹 별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체	χ^2
	없음	교화단회	야회	공부방	선방	기타		
40세 이하	17(47.2%)	11(30.6%)	1(2.8%)	5(13.9%)	1(2.8%)	1(2.8%)	36(100%)	.018
41~50세	25(36.2%)	24(34.8%)	2(2.9%)	10(14.5%)	6(8.7%)	2(2.9%)	69(100%)	
51~60세	37(23%)	74(46%)	6(3.7%)	14(8.7%)	15(9.3%)	15(9.3%)	161(100%)	
61~70세	36(25.7%)	61(43.6%)	5(3.6%)	6(4.3%)	16(11.4%)	16(11.4%)	140(100%)	
71세~	23(26.4%)	42(48.3%)	0(0%)	2(2.3%)	9(11.4%)	11(12.6%)	87(100%)	
전체	138(28%)	212(43%)	14(2.8%)	37(7.5%)	47(9.5%)	45(9.1%)	493(100%)	df=20

위의 <표 3-6>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에 따라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2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에 따라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7> 나이 그룹별*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십니까?

나이 그룹별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40세이하	13(29.5%)	31(70.5%)	43(100%)	.003
41~50세	33(40.7%)	48(59.3%)	79(100%)	
51~60세	45(23.9%)	143(76.1%)	185(100%)	
61~70세	62(38.3%)	100(61.7%)	157(100%)	
71세~	44(43.6%)	57(56.4%)	101(100%)	
전체	197(34.2%)	379(65.8%)	565(100%)	df=4

위의 <표 3-7>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에 따라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2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에 따라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8> 나이 그룹별*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십니까?

나이 그룹별	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40세이하	16(36.4%)	28(63.6%)	44(100%)	.049
41~50세	28(35%)	52(65%)	80(100%)	
51~60세	51(27.3%)	136(72.7%)	187(100%)	
61~70세	35(21.65)	127(78.4%)	162(100%)	
71세~	36(36%)	64(64%)	100(100%)	
전체	166(29%)	407(71%)	573(100%)	df=4

위의 <표 3-8>에서와 같이 나이그룹별에 따라서 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그룹을 독립변인으로, 매주 법

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2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그룹별에 따라서 매주 법회 후 교화단 모임을 원하기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입교년도별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

<표 4-0> 입교년도별

입교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입교연도	70년이전	273	44.5	55.8
	71~80년	70	11.4	14.3
	81~90년	46	7.5	9.4
	91년이후	100	16.3	20.4
	합계	489	7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4	20.2	
합계		613	100.0	

<표 4-1> 입교년도별*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교연도별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불전헌배	입정	독경	성가	설명기도	범어봉독	일상수행의요법	설교		
70년이전	15(6.9%)	4(1.8%)	6(2.8%)	1(0.5%)	4(1.8%)	4(1.8%)	2(0.9%)	182(83.5%)	218(100%)	.026
71~80년	5(9.3%)	3(5.6%)	1(1.9%)	0(0%)	0(0%)	2(3.7%)	1(1.9%)	42(77.8%)	54(100%)	
81~90년	2(4.9%)	0(0%)	5(12.2%)	0(0%)	1(2.4%)	2(4.9%)	2(4.9%)	29(70.7%)	41(100%)	
91년이후	1(1.2%)	6(7%)	5(5.8%)	0(0%)	2(2.3%)	4(4.7%)	6(7%)	62(72.1%)	86(100%)	
전체	23(5.8%)	13(3.3%)	17(4.3%)	1(0.3%)	7(1.8%)	12(3.0%)	11(2.8%)	315(78.9%)	399(100%)	$df=21$

위의 <표 4-1>에서와 같이 입교연도별에 따라서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교년도를 독립변인으로,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

한 결과 $\chi^2=.026(df=2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따라서 입교 년도에 따라서 법회식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 입교년도별*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입교 년도 별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체	χ^2
	전혀 안함	거의 안함	약간 함	상당히 함	매우 잘함		
70년 이전	0(0%)	6(2.2%)	74(27.6%)	163(60.8%)	25(9.3%)	268(100%)	.000
71~ 80년	0(0%)	1(1.4%)	31(44.9%)	33(47.8%)	4(5.8%)	69(100%)	
81~ 90년	0(0%)	2(4.3%)	28(60.9%)	15(32.6%)	1(2.2%)	46(100%)	
91년 이후	1(1%)	8(8.1%)	58(58.6%)	30(30.3%)	2(2.0%)	99(100%)	
전체	1(0.2%)	17(3.5%)	191(39.65)	241(50%)	32(6.6%)	482(100%)	

위의 <표 4-2>에서와 같이 입교년도별에 따라서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교 년도를 독립변인으로,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1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입교년도에 따라서 법회 설교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3> 입교년도별*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교년도별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70년이전	87(32.7%)	179(67.3%)	266(100%)	.003
71~80년	15(22.7%)	51(77.3%)	66(100%)	
81~90년	8(17.8%)	37(82.2%)	45(100%)	
91년이후	15(15.5%)	82(84.5%)	97(100%)	
전체	125(26.4%)	349(73.6%)	474(100%)	

위의 <표 4-3>에서와 같이 입교년도별에 따라서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교년도를 독립변인으로,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3(df=3)$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따라서 나이 입교년도에 따라서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4> 입교년도별*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교 년도 별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전혀 안함	연1회	연2회	매월1회	매주1회	수시로		
70년 이전	16(6.5%)	4(1.6%)	17(6.9%)	34(13.7%)	67(27%)	110(44.4%)	248(100%)	.000
71~ 80년	6(9.5%)	0(0%)	4(6.3%)	17(27%)	17(27%)	19(30.2%)	63(100%)	
81~ 90년	2(4.7%)	5(11.6%)	3(7.0%)	9(20.9%)	11(25.6%)	13(30.2%)	43(100%)	
91년 이후	10(11.5%)	8(9.2%)	6(6.9%)	25(28.7%)	18(20.7%)	20(23%)	87(100%)	
전체	34(7.7%)	17(3.9%)	30(6.8%)	85(19.3%)	113(25.6%)	162(36.7%)	441(100%)	$df=15$

위의 <표 4-4>에서와 같이 입교년도별에 따라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가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교년도를 독립변인으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1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따라서 나이 입교년도에 따라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5> 입교년도별*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입교 년도 별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체	χ^2
	없음	교화단회	야회	공부방	선방	기타		
70년 이전	37(16.7%)	114(51.6%)	7(3.2%)	14(6.3%)	25(11.3%)	24(10.9%)	221(100%)	.001
71~ 80년	15(25.4%)	28(47.5%)	0(0%)	7(11.9%)	4(6.8%)	5(8.5%)	59(100%)	

81~90년	13(33.3%)	16(41%)	0(0%)	5(12.8%)	2(5.1%)	3(7.7%)	39(100%)	
91년 이후	40(44.4%)	28(31.1%)	2(2.2%)	8(8.9%)	9(10%)	3(3.3%)	90(100%)	
전체	105(25.7%)	186(45.5%)	9(2.2%)	34(8.3%)	40(9.8%)	35(8.6%)	409(100%)	df=15

위의 <표 4-5>에서와 같이 입교년도별에 따라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교년도를 독립변인으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00(df=1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입교년도에 따라서 현재 교당에서 법회이외의 다른 활동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6> 입교년도별*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십니까?

입교년도별	법회식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70년 이전	98(36.7%)	169(63.3%)	267(100%)	.011
71~80년	28(41.8%)	39(58.2%)	67(100%)	
81~90년	15(32.6%)	31(67.4%)	46(100%)	
91년 이후	20(20.2%)	79(79.8%)	99(100%)	
전체	161(33.6%)	318(66.4%)	479(100%)	df=3

위의 <표 4-6>에서와 같이 입교년도별에 따라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교년도를 독립변인으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11(df=3)$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입교년도에 따라서 교당 법회 참석시 교화단별 지정 좌석을 원

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7> 입교년도별*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교년도별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χ^2
	예	아니오		
70년 이전	183(68.5%)	84(31.5%)	267(100%)	.050
71~80년	53(79.1%)	14(20.9%)	67(100%)	
81~90년	35(77.8%)	10(22.2%)	45(100%)	
91년 이후	78(81.3%)	18(18.8%)	96(100%)	
전체	349(73.5%)	126(26.5%)	475(100%)	$df=3$

위의 <표 4-7>에서와 같이 입교년도별에 따라서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교년도를 독립변인으로,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050(df=3)$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나이 입교년도에 따라서 교화단회를 일요 법회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1.

원기 71년 3월호 통권 139호

< 특집 >

「圓佛敎 信仰을 照明해본다」

- 신앙성을 강화한 법회의식의 모색 -

圭金 정 현 인 교무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에 강렬하고도 효과적인 종교적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회의식은 더욱 연구되어야 마땅하다.

1. 이끄는 말

원불교는 모든 이들에게 법신불 본체와의 연결과 그를 통한 열의 향상과 인생의 바른 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에 대한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정례법회 (예회)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회를 통하여 법에 대한 이해와 바른 신앙심과 수행의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에 강렬하고도 효과적인 종교적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회의식은 더욱 연을 통해서 법회 참여의 당위성을 일깨워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현행 법회의식을 점검해보고, 보다 신앙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회의식의 구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법회의식의 성립사

법회의식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어 왔으나 대체로 다섯 차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원기 13년 6월에 간행된 「월말통신」 제2호를 보면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연구부 간사 송도성 군이 등석하(同氏)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김광선 씨의 인도로 심경독창(心經讀唱)을 하고 사회의 문제소개가 있는 후전음광 송도성 송규 3씨가 차제등단하여 『공부의 8계급』이란 연제로 장시간 열 번을 토하고 동 2시에 폐회를 선언하다」라 되어 있다. 이를 보면 ① 출석점검 ② 개회사 ③ 심경독창 ④ 강연 ⑤ 폐회의 간단한 차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원기 15년 7월 「월말통신」 제 30호에서는 ① 개회 ② 법회급선서문(法會及宣誓文)낭독 ③ 취지서 일편낭독 ④ 질의문답 이러한 순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질의문답」은 후에 「경의문답」(經疑問答)이라고도 불리웠다. 3) 원기 17년 4월 「월말통신」 제 35호에 보면 이때 「종사주의 下命에 의하여 自比로는 本會 本支部를 물론하고 心告를 一種의 例會順序로 插入할 것을 선포」하여 ① 개회 ② 출석원 점검 ③ 심고 ④ 예회가(例會歌) ⑤ 법어봉독 ⑥ 경의문답 ⑦ 선서문낭독 ⑧ 감각감상 ⑨ 폐회의 순으로 정리되어 심고와 예회가 등이 첨가되고 강연이 경의문답과 감각감상 등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원기 20년경 삼귀의와 사홍서원 등이 법회회순 중에 덧붙여서 불교적 색채가 강화되었기에 이르렀다.

3. 현행 법회의식의 검토

현행 법회회순은 ① 개회② 입정 ③ 교가 ④ 심고 ⑤ 법어봉독 ⑥ 일상수행의 요법 ⑦ 경강 및 성가 ⑧ 설교 ⑨ 법의문답 ⑩ 기타(선서문, 광고) ⑪ 산회가 ⑫ 폐회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독자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여러 종교의 장점을 수렴하여 정리·성립되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전통적인 요소를 지니면서도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어 대중이 함께 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상수행의 요법과 대체로 수행성이 강조되는 우리의 설교를 살펴보면 수행적인 면이 드러날 뿐 아니라 법어봉독, 경강, 설교, 법의문답 등 일련의 부분들은 우리의 의식이 다분히 지적(知的)인 면이 두드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정(情)적인 요소와 그에 수반되는 신앙적 분위기가 적어지는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 또한 경강과 설교의 구분이 어려워 실제로 일선교당에서는 경강을 생략해버리거나 함께 경을 읽는 순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논쟁

혹은 오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를 되도록 유지하면서 약간의 보완을 통해 법회를 통한 종교적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새로운 법회의식의 모색

필자가 구상하는 새로운 법회회순은 사회자가 따로 없이 전체의 분위기를 시종 법회 담당교무가 이끌 수 있다. ① 입참(入參)의 배례(拜禮) : 법회시작 전에 향축을 켜 후 불전에 앉아 있던 교무가 경종 10타로 시작을 알린 후 일어서서 4배를 올린다. 전 교도는 함께 4배를 올린다. 우리의 식순에는 불전에 예를 올리는 의식이 매우 약하다. 법회 시작이 불전에 예를 올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은 당연하며 실제로 교역에 임한 교화자는 큰절로 올리는 배례가 교도의 신앙심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② 명상 : 4배를 올린 후 그 자리에 앉아 명상이 시작된다. 특히 이 순서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되새기도록 교무가 직접하거나, 혹은 녹음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다. ③ 심고 : 함께 일어서서 심고를 올리되 심고에 대한 훈련을 선행하여 묵상심고를 유도해도 좋다. ④ 법어봉독 : 교무는 기립한 상태에서 그리고 교도는 앉은 후 법어를 봉독하되 마음과 소리를 합하기 위하여 전체 합독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⑤ 법신불 찬송가 : 교무는 일어선 채로 교도와 함께 성가 제 4 장을 부른다. 성가대를 운용해도 좋으며 이는 입참 후 명상을 통하여 세속의 때를 털어낸 후 심고와 법어봉독으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선 모두가 그 진리를 찬탄하는 순서적 의미를 지닌다. ⑥ 입정 및 헌다(獻茶) : 교무는 앉고 경종 혹은 죽비로 신호하여 5 ~ 7분 정도의 긴 입정을 하여 교도들로 하여금 선정의 체험을 하며 설교에 앞서 마음의 정리를 하게 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교도가 법회시간에 늦는 관계로 입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수가 많으며 숨찬 상태에서 마음이 바로 골라지기도 어렵다. 입정이 끝나는 신호와 더불어 미리 선정된 1인이 청수기에 청수를 담아(茶의 의미) 뒤편에서 중앙통로를 통해 걸어 나와 (이 때 흰 법복을 착용해도 좋겠다), 불전에서 일어서서 불단 끝으로 나온 교무에게 헌상하며 교무는 이를 받아 불전에 올리고 연단으로 가 이때까지 합장하고 있던 전 교도와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시작한다. 헌다는 설법을 청하는 전통적 의식이며 (원기12년의 『佛法研究會規約』과 그 후의 『勤行法』의 說法禮式편을 보면 「……법사가 출석하여 법상에 오르시면 법사에게 茶를 올리고 대중은 일제히 청법을 기대할 지음에 법사가 법을 설하여 다 마치시면 대중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함」)이를 불전으로 유도함으로써 교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 또한 청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전도구를 선용하는 점도 있다. ⑦ 설교 : 20 ~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⑧ 성가 : 설교 순에서 법회분이기는 가장 고조되며 이 법열을 교무와 교도가 함께 찬양하는 성가 순이 있어 마땅하다. ⑨ 헌향(獻香) : 감사, 기원, 생일 등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교도들로 하여금 불전에 나와 향을 사루어 올리는 순이다. 이 때 성가대 혹은 녹음 성가합창을 해도 좋으며 헌공도 이순에 하도록 한다. 헌향대를 대로 만들어도 좋다. ⑩ 심고 : 헌향이 끝나면 모든 교도는 일어나 심고를 하는데 감사와 다짐, 은혜의 기원 등을 간단하게 하여 묶어주며 심고가 끝나는 동시에 법회도 마치게 된다.

이 법회의식의 운영상의 특징은 현 법회의식의 골격을 중시하면서 간략화 하였으며 모든 순서가 끊기는 일이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자가 필요 없으므로 사회의 미숙으로 인한 분위기의 경색을 막고 신성의 감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교도의 참여는 훨씬 그 폭이 넓어진다. 또한 의식에 대한 의미가 더욱 커져서 설교에만 집중되기 쉬운 종래 법회의 분위기를 완화하여 의식자체에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교가 등은 4축 2재 등의 교단적 행사에만 부르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또한 내용상의 특징으로는 입참의 배례, 헌다, 헌향, 심고의 중시 등으로 신앙적 분위기가 제고될 수 있고 명상과 긴 입정 등을 통하여 선정(禪定)의 체험을 심화하게 하며 점층적으로 신성한 분위기가 강화되어 법열을 표현하게 하는 순리적 순서로 정적(情的)인 분위기가 순화되기 쉬운 의식이라 생각된다. ♣

부록2.

원기 72년 1월호 통권 149호

< 특집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원불교 법회의식

- 현행법회 이대로 좋은가 -

김 인 강

1. 이끄는 말

원불교 법회는 일월상의 진리를 강론하고 훈련하며, 신앙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베푸는 법의 모임을 말한다.

그런데 법의 모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정례법회와 수시법회로 구분하고 있다.

정례 법회는 대체적으로 계절별, 월별, 주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회는 어린이 학생 청년 일반교도 등이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기 위하여 일요일 또는 평일 (3·6)등에 정기적으로 보는 법회다.

야회는 수요일이나 기타 일요일의 밤에 교리공부나 기타 한문공부와 취미교실 등을 통하여 평생 교육의 터전을 닦아가고 있다.

월별 정례법회로는 부부법회와 청운회법회, 원창회, 원심회 등 요인회가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공부와 사업 간에 서로의 친목과 공부 풍토를 조성해 가고 있다.

아울러 월초기도와 보은미기도 등을 통하여서도 법의 모임의 성격을 띠며 점차 뿌리 내려 가고 있다.

계절별 연례법회로는 동선 하선 특별 강습회가 있어 교의(教義)연마와 수행의 전문

훈련을 실시하는데, 요즘 교리학교나 교당강습회 요인훈련 교화단 훈련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하겠다.

수시법회에는 교당과 교화책임자와 교도들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개최하는 교도들의 회합과, 의례를 갖추어야 할 교당의 모든 집회를 통칭하고 있다.

이에 교구합동으로, 또는 교당과 교당 간에 실시하는 연합(합동)법회와, 야외에 나아가 법회와 체육행사와 오락 등 봉사활동을 겸하는 야유편회와 행사, 그리고 대재 등을 맞이하여 선진을 추모하는 추모법회 등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원불교의 법회는 여러 형태의 각종 법의 모임을 통하여 일원상의 진리를 배워 익히며, 일상생활에 활용토록 가르치고 있다.

2. 대중사 당시의 법회

대중사님을 직접 뵈시고 생활하던 당시에는 제자들과 함께 공사하고 공부하며 공동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법의 모임이 없었다.

생활 그 자체가 바로 공부요 법의 모임이었으며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차츰 제자들이 모여들고 공부와 사업상 공사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법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① 제자들의 출석을 점검하고 ② 공사나 공부진행을 책임자가 시작을 알리고 ③ 좌선(좌선) 독경 등 명상을 대중이 함께 하며 ④ 강연이나 회화 등 감각감상을 발표하고 ⑤ 대중사님의 말씀을 받들며 ⑥ 공지사항 등 공사를 통하여 법의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중사님 당시에는 법회의 일정한 형식과 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단생활 그 자체가 바로 법의 모임이었고, 법도량이었으며 법회였다고 볼 수 있겠다.

3. 법회의 변천과정

원불교의 법회는 원래 아주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70여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여러 모양의 법회 식순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대체로 7차례의 변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

1) 교단 초기인 원기 원년부터 10년경까지의 법회로써는 맨 먼저 공사나 법회를 알

리고, 제자들의 출석을 점검하며, 사회자의 시작과 명상 등 수양시간을 가지고 (염불, 독경), 하루의 반성과 감각감상발표와 회회(의견교환)하며, 대중사님 말씀을 받들고, 기타 공지사항 등 공사를 하며 공사와 공부를 마치는 순으로 순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2) 원기 13년경 (월말통신 2호)에는 ①출석 점검 ② 개회사 ③ 심경 독창 ④ 강연 ⑤ 폐회 순으로 되어 있다.
- 3) 원기 14년 9월 경 (월말통신 19호)부터는 의견 제출과 법어봉독 (심경 독창 대신) 순이 사용되었으며,
- 4) 원기 15년 5월경에는 (월말통신 27호)성가 六月歌와 慶祝歌와 선서문 낭독과 질의문답이 있어 제시하였는데 ① 개회 ② 출석점검 ③ 법어 및 선서문 낭독 ④ 강연 ⑤ 질의문답 ⑥ 기타(노래 및 공지사항) ⑦ 폐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 5) 원기 17년 4월경부터는 (월말통신 35호) 심고(心告)를 삽입하게 하여 ① 개회 ② 출석점검 ③ 심고 ④ 예회가(성가) ⑤ 법어봉독 ⑥ 질의문답(경의문답) ⑦ 선서문 낭독 ⑧ 감각감상 ⑨ 폐회 순으로 정리되고 있다.
- 6) 원기 20년경부터는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법회 순에 삼귀의나 사후서원을 넣어 불교의 색채가 짙게 하고 있다.
- 7) 원기 53년 예전이 정식으로 발간되면서 현재의 법회 순인 ① 개회 ② 입정 ③ 교가 ④ 심고 ⑤ 법어봉독 ⑥ 일상수행의 요법 ⑦ 경강 및 성가 ⑧ 설교 ⑨ 법의문답 ⑩ 기타(선서문 등 공지사항) ⑪ 산회가 ⑫ 폐회 순으로 되었다.

4. 현행 법회, 이대로 좋은가?

원불교에서는 법회를 통하여 ①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게 하고 ②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참례케 하며 ③ 모든 절차에 감명을 받도록 하여 ④ 법의 실력을 얻게 하고 ⑤ 법의 훈련을 쌓자는데 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법회는 정기적인 훈련의 하나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공부의 자료를 얻고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보고 있고, 참례하는 법회는 본래의 목적과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나는 교도들이 법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리에 대한 지식과, 원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회의 내용이나 훈련시기의 선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이 시급히 요청되며, 이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은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의 진리보다, 교무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소홀하고, 인정 교화에 머물기 쉽다는 것이다.

그 셋은 교역자의 설교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교도들의 실생활과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회가 일상성에 흐른다거나, 설교가 교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는 법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일정한 흐름이 없어 지루하고 불안한 느낌을 주어 경건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법회의 흐름 속에 불교의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화의 언어와 의식으로 전통화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반(노인, 부부, 직업별) 청년, 학생, 어린이 법회 순이 교도들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 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바람직한 법회운영의 방향

오늘날 대종사님의 근본정신과 원불교가 지향하는 교화방향 등 교도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바람직한 법회의 운영을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1) 법회에 참여하는 교도로 하여금 정감이 넘쳐흐르고 법열에 충만하여 교당이 마치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는가?

2) 일주일 동안의 지낸 일을 돌이켜 보며,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인가? 또한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가?

3) 생활 속에서 감각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나누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또한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가?

4) 의심된 사항과 질의 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의 길을 제시해주고, 만족할만한 답을 해주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자세는 되어 있는가?

5) 법회가 모름지기 오롯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고, 기다려지는 법의 모임이 되고 있는가?

6) 교도들이 모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여 놓고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가?

7) 법회를 마치면 반드시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 실생활에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종교는 어디까지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막아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늘 깨어있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존경받는 인간이 되게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며,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도들은 누구나 여러 종류의 법회를 통하여 진리와 하나가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며,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 되고 싶고 일상적 따분함과 짜증스러움으로부터 구원 받고 싶어 한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법회를 통하여 교도의 공부와 일상생활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 속에 생활이 함께 살아나도록 하는 다양한 법회 운영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특집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원불교 법회의식

- 법회는 교화의 핵이다 -

月山 김 일 상 교무님

1. 교화가 관건이다

교화가 잘되어야 교단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만약 교화를 사업이나 교정(敎政)의 뒤 순위로 생각하는 교역자가 늘어나면 교단의 존재 가치는 그 빛을 덜게 된다.

그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중생을 제도하자는데 그 뜻이 있고, 중생의 제도는 교화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교화는 일선교화가 바탕이 되고, 일선교화는 ① 모이게 하고 ② 감동을 주고 ③ 실천하게 하는 박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모이게 하는 것은 순교로 대변되고, 감동은 법회로 대변되며, 실천은 교도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기질의 변화로 대변된다.

일선교화의 3박자 가운데 핵이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법회가 지목된다.

「법회는,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하는 것」 <예전 제3장 법회>이라 했다.

진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진리가 체질화되도록 하며, 진리를 경배하는 행위로 일관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법회의 의식은 이론이 있고, 실습이 뒤따르며 경건성이 함께 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시종일관 경배나 경건성이 장엄과 함께 흐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일반법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건과 장엄이라는 말로 귀결됨을 강조하고 싶다.

2. 교무와 교도 모두 훈련이 필요

교화와 핵이 법회로 표현되고, 법회는 경건과 장엄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시켰다.

문제는 법회가 경건과 장엄으로 일관되게 하기 위해 교무와 교도가 공히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훈련된 교무와 교도는 법회를 중히 여기며 의례의 하나로 생각지 않는다.

법회를 의례의 하나로 생각하는 교무와 교도의 형태는 아래 사항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① 권위를 앞세우고 강단을 소홀히 한다. ② 법회에 참석할 때 교전을 지참치 않거나 지각을 자주한다. ③ 순교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당을 자주 비운다. ④ 법회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⑤ 법당 안에서 정숙을 기하지 않는다. ⑥ 법회 중에 준비 없이 강단을 자주 오르내린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경건과 장엄이 함께 해야 할 법회의 분위기를 흩어버리는 요인이 되고, 이것은 교역자와 교도가 훈련되지 않는 데서 기인이 된다.

법회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건과 장엄은 하나의 분위기이고, 분위기는 기법이 따라야 한다. 즉 기능적이 아닌 정성스런 기법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교무는 법회를 주관하여 진행하되 기법이 갖춰져야 한다.

법회 진행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에 단절이 없어야 하며 교도로 하여금 능동적인 참여 내지는 공동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는 이이다.

3. 일반법회를 위한 유의사항

① 수요법회의 시행

「월례법회는, 매월 중 모든 교도의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게 하는 법회로서 그 지방 이란 교도의 생활형편에 따라 일요일이나 3·6일 예회에는 수요일 야회를, 3·6일 예회에는 3·1에 야회를 개최하며」 <예전 법회 중 월례법회>라고 설명한다.

죽적인 법회 외에 중간 법회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도로 하여금 신앙·수행에 있어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함으로 마음의 유출을 대비하여 묶어 주

는 의미가 다분하다. 따라서 일반법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형편 여하를 가리지 않고 중간 법회를 마련함에 유의해야 한다.

② 특별법회 시행의 고려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에 관심을 집중토록 하는 모든 방법을 교화방법이라 한다.

교화방법은 원칙이 있고, 원칙을 돕는 방편이 있다.

원불교 일선교화의 원칙은 교화단 교화이고 그 외의 것들은 방편에 속한다 때문에 교당에서 교화단 교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공전을 면치 못한다.

일선교화가 이뤄지는 교당교화에서는 방편은 부부법회 · 연령층별 법회 · 가족법회 · 남자교도법회 등 교화단의 명칭을 떠난 법회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물론 교화를 활성화 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인 교화를 위해서는 소정의 효과를 얻은 뒤 빠른 기간 내에 발전적인 해체를 감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편은 역시 방편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생명력이 약함을 뜻한다.

③ 설교는 교리 중심적이어야 교역자의 설교는 교도의 신앙 ·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때문에 법회에서의 설교의 비중은 자못 큰 것이고 정성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설교의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30분이면 전달코자 하는 내용을 모두 전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간은 설명적이어서 중복될 가능성이 짙고, 법회 전체의 시간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기 때문이다. 법회 전체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요청에 근거한다.

설교의 내용은 정전 · 대중경 · 교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원불교적인 정신에 의해 삶의 방향을 설정케 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설교가 일반적인 설교로 변하기 시작하면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이 축을 잃게 된다.

④ 기타 시간은 간단해야

법회 순서에서 기타 시간은 필요악 같은 것에 속한다. 없애면 아쉽고 있으면 자칫 법회 전체의 분위기를 흩어 버릴 요소가 많다.

특히 순서상 설교 뒤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설교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때로는 지리함과 거부감마저 일어나게 하는 것임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타 시간은 5분 정도의 영역을 넘지 않게 유의하고 꼭 필요하다면 광고 목적에 준해 감각 감상처럼 별도 순서를 두어 진행함이 효과적이다. 때로는 유

인물로 처리하는 것이 법회 진행상 바람직한 것이다.

⑤ 피아노(오르간)의 활용

법회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영역은 크다. 따라서 음악을 통해 교도의 신앙·수행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는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피아노의 역할이 없는 법회를 진행치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유급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현행 법회에 대한 몇 마디

① 의식을 연구하도록 문을 열어야

현행 법회의 순서가 수위단회의를 거쳐 2년간 예비 시행케 한 것은 좋으나 바람직한 법회의 순서를 얻기 위해서라면 현행과 같이 동일한 식순을 전반적으로 시행함과 아울러 별도 몇몇 교당에 연구 과제를 주어 연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회의 순서는 「예전」의 법회 식순과 달리 진행되는데 「예전」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시행 세부 사항은 교무나 교당의 형편에 준하게 되는 것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연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교가를 순에서 빼는 것도 바람직

법회는 행사를 위한 의식이 아니다. 교가란 부정기적인 행사 의식에서 불릴 성질의 것이고 법회에서 빼어야 한다. 초기 교단에서는 교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식의 흐름을 경직시키는 면이 강하다. 본래 의식에 사용되는 성가는 그 의식을 떠나면 효과가 절감이 된다. 이런 면에서 유추해 본다면 교가는 순에서 빠져야 한다.

③ 심고와 기도가 활용돼야

법회는 교도의 신앙과 수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앞서 고찰했다. 특히 일반법회에서는 의존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고가 작성된 글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생동감이 적고 감동이 감소된다. 그러므로 즉석 심고로 변화시키고 설교 후에는 교무의 즉흥적 심고로 설교 내용을 다시 축약해 전하며, 때로는 설교에 대한 명상의 시간 같은 것을 두어 설교의 의미가 교도의 가슴에 심어져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야 한다.

5. 문제는 교도의 양적 팽대

아무리 좋은 법회 식순이라 해도 교도의 수가 적으면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법회 식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도가 한 자리에 모이어서 법회를 보지 못하는데 있다.

< 특집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원불교 법회의식

- 혼연일체를 이루는 경건과 장엄의 법회 -

나 철 중 교무님

원불교를 「새 종교」라고 말할 때 꾀 신선한 느낌을 받는다. 원불교를 「새 불법」이라고 말할 때 꾀 생동감 있게 들린다. 원불교를 「생활종교」라고 할 때 꾀 친근한 생각이 든다. 이러한 느낌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도들의 노력으로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의 이른바 「제3의 물결」에 휘말려 가치 혼돈 속에 내던져진 현대인들에게 새 광명·새 생명·새 윤리로 승화되어 자기구원의 감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우리는 무상대도 회상의 복된 불자들이다.

먼저 「시간」과 「법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시간」그 자체는 별로 대단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값도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시간을 사는 인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시간에 의미가 지워지고 값도 매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로 나타난 갖가지 일은 그 성과에 따라 시간의 의미와 값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대종경에서 예시(例示)하신 세 사람 곧 기계를 연구하는 사람, 좌선하는 사람, 무료도일하는 사람의 각각 다른 결과나, 대종사님과 숨은 명창의 이야기(수행품11)는 시간에 무서운 의미와 값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우린 법회의 중요성과 값어치를 재확인,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요성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속한 나머지 도리어 인식속의 망가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산종사 법어에 육신 생활은 부업이요 정신생활이 원업이라고 하셨다. (법훈편1) 원업의 일터가 바로 정신의 법량을 거래하는 법회의 마당이다. 법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대종경, 수행품7) 더욱 중요하고 무값의 법보이기 때문에 더 더욱 값지다.

대중의 마음이 한데 어리어 그 신련하고 맑은 기운이 구천에 솟아오르는 거룩한 자리(대종경, 천도품 25)임을 확신할 때 그 시간의 고마움과 무한한 값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듯 내가 신앙하는 종교의 우월성에 대한 자긍(自矜)에다 법회에 대한 구천에 사무치는 정성이 더하여질 때 그는 법석(法席)이전에 이미 제도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 법회는 관성에서 탈피

법회 의식에는 관성(慣性)이 생기기 쉽다. 관성은 좋은 것이 못된다. 특히 새롭게 거듭남을 요구하는 법회의 목적에서 볼 때 의식의 타성에는 늘품이 없어 좋지 않다. 의식의 순서 하나하나에 공부의 대중을 잡고 나갈 때 늘 새로운 감동을 맛 볼 수 없다. 곧 개식을 알리는 죽비 소리에 일원상을 우러러 경례하면서도 벅찬 감격에 젖는다. 자나 깨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부처님끼리의 만남도 감정 잡기에 따라서는 경천동지의 경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입정」만 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정적에 빠지는 순간 느끼는 희열과 편안함은 - 입정은 무념무상의 상태(暗)라고 하나 이러한 느낌(明)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으리라. 우리의 서원은 오직 성불제중이다. 이 당연한 명제조차도 염두에서 놓지 않고 경계 따라 다잡지 아니하면 관성에 흐르기 쉬우므로 법회에서의 「일상수행의 요법」 「일원상서원문」의 독경은 대서원의 엄숙한 의식으로서의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한 평생 수백 번 수천 번 삼가 정심재개하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이것이 개어 있는 신앙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회의 심고는 대중동지로 더불어 큰 힘을 뭉쳐 부처님께 통사정하는 일이므로 날날의 순일한 마음이 요청된다. 천지와 내가 하나 되는 심경을 부딪쳐 볼일이다. 그 밀어붙이는 힘만큼의 은혜가 내림을 자신만은 안다. 자아를 몰입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자주 불생불멸을 입에 담지만 그 참뜻을 체인(體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정전」을 손에 들면 대종사님의 체온을 느끼고 「대종경」을 읽으면서 대종사님의 입이 바로 내입임을 느낄 때는 어렵풋하나마 그 뜻을 알 것 같다. 법회에서의 법어봉독이 읽는 사람의 입을 빌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우리 앞 사자좌에 앉아계시는 것으로 마음 귀 · 마음눈으로 듣고 보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대종사님을 비롯한 삼세제불을 모시고 법문을 받들 수 있다. 신앙이란 부처님께 오롯이 귀의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가」는 우선 불러서 흥이나고 신명이 나와 한다. 삼라만상 유정 무정이 한데 어우러져 화기에 차야 한다. 법열의 표출이라 춤을 동반할 수도 있다. 가사(법문)는 우리가 그 속에서 용해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래서 성가는 익숙하게 잘 부르고 많이 알수록 좋다.

☒ 설교는 법회의 절정

「설교」는 법회의 하이라이트이다. 법을 설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경지로 이끌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법을 설하는 이는 자비로워야 하고, 듣는 이는 그 품에 들어야 하며. 설하는 이는 자신에 차 있어야 하고 듣는 이는 마음을 온통 비워야 하며, 설하는 이는 방편이 자재로와야 하고 듣는 이는 계교치 말아야 하며, 설하는 이는 제 것을 설해야 하고 듣는 이는 어디까지나 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혼연일체 속에 이뤄지는 이러한 법공양은 그야말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신앙과 수행을 촉진하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유념(留念)해 둘 일이 있다. 설교의 묘는 능변·다변보다는 적은 말 속에 거추장스럽지 않은 간명함이, 고답적인 내용이 기 보다는 일상적이고 서민적인 내용이, 유식한 문자보다는 언문풍월이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한다는 점에 있다. 「법의문답」 또한 귀중한 차례다. 대중이 서로 사·리 간에 모르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은 자리이타행이다. 공부해야 물을 수 있고 공부해야 대답할 수 있으므로 묻기를 좋아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도 스스로없이 물을 수 있고 스스로없이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 형식의 법의 문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공부가 익어가고 신앙심은 튼튼히 뿌리내릴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현행 법회 의식이나 설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다.

☒ 법회진행에 대한 제언

「죽비」는 의식 차례의 시와 종을 알리는 것이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나서 쳐야 마땅하다. 입정하는 시간은 될수록 길어야 한다. 형식적일 수 없다. 입정만 갖고도 상당한 공부가 되어야 하므로 짧아도 5분은 되어야 한다. - 일상수행의 요법, 일원상서원문의 독경순은 의식속의 의식으로서의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 한갓 식순을 밟는 것이 되어서는 끝내는 관성에 흘러 느낌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이순서의 집례만큼은 교무가 하였으면 한다. 법회의 심고는 그 예문(例文)을 시절·시국·교단적 특기 사항들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여 때에 따라 새로운 감동을 주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이 또한 느낌의 둔화(鈍化)를 막기 위함이다. 또 심고는 앉은 자세로 올리면 어떨까 한다. 일어서서 올리느니보다는 앉은 자세가 더 안정되기 때문이다. 반좌(盤坐)가 예에 소홀하다면 무릎을 꿇더라도 앉아 올렸으면 한다. 일어섰다 앉았다 함은 안정된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하는 까닭이다. 「교가」도 앉은 채로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유는 위와 마찬가지로. 애국가 봉창의 예와 비길 것은 구태어 없다고 본다.

우리 성가에는 내용면에서 교가보다도 우위의 성가가 두서너 장이나 더 있는 바에야 구태여 교가라고 해서 꼭 서서 불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강」은 명실상부한 경전의 강설(講說)이어야 한다. 읽는데 그쳐서는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의심이 풀릴 기회가 못된다. 모르던 것이 하나씩 깨쳐지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풀려지는데 재미를 붙이도록 실속 있는 경강이 요청된다. 「설교」는 법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많은 준비와 연마와 방편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리의 특징적인 면이 항상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야 한다.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우리만이 말할 수 있고 우리만이 전개할 수 있는 철학적 사상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내세어야 한다. 후천개벽의 기수인 우리 원불교의 설 땅이 거기에 있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고뇌와 갈등을 풀어줄 제도의 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설교는 그 내용이 「강경(講經)설교」보다는 「주제설교」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설교는 첩약(貼藥)같아 포괄적이고 강경설교는 약재 같고 그 성분 분석 같아 부분적·분석적이다.

환자 (=대중)는 의사(=교무)가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병에 맞는 각종 약재를 배합(=교리 전반에 걸친 내용)해서 지은 첩약(=주제)을 먹(=돌)으면 되었고 그 약방문이나 약리작용(=강경)까지 알 것은 없다. 그러나 환자가 병의 원인을 알아 자신이 약방문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니 약재의 성분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이 강경설교도 또한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중은 또한 이미 지어놓은 기성복보다는 내 몸에 맞는 맞춤형(대종경, 교의품 24)을 입기를 원한다. 결코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법문일지라도 이를 완전 소화하여 체득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 법문이 된다. 그것이 법을 설하는 이나 듣는 이의 맞춤형인 것이다.

이상은 법회에 관하여 평소에 가졌던 소감과 소신과 소망이다.

< 특집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원불교 법회의식

- 未來의 자기를 확신하는 自覺의 場 -

金山 권 도 갑 교무

▣ 머리말

오늘날 대학생·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그들의 삶에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청년을 새로이 만나면 언제나 「장래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이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대답하기를 어려워하였다.

현재 학교 교육이 학업 성적에만 관심이 치달고, 그들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모나 일반사회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부(富)와 권력을 약속하고 학교나 학과에 그 진로가 집약되고 있어서 정작 그들이 가진 고유의 적성을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주변의 권유와 인기도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들이 정작 사회에 진출하여서는 대부분이 자기의 길을 잘못 들어섰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적응이 어려웠다. 그들이 학창시절에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것과는 달리 주어진 여건에 쉽게 체념하거나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 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 문제해결의 법회

법회란 참여하는 대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청년법회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목적을 정립하게 하고 주어진 생애 소명(召命)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걸어가야 할 독특한 길이 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하늘이 주신 길, 진리가 정해진 길이 있다. 사람들은 이를 천직(天職)이라 한다. 오늘
의 젊은이에게 이를 발견하게 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생을 살면서 젊은 시절에 그의 천직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이미 성
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면 모든 여건이 자연히 그의 길을 위해 조성되어지고, 모
든 일이 그를 위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그의 천직을 묵묵히 수행할 때 그
로 하여 세상이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 하여 새로운 역사가 탄생될 것이다.

진리는 그의 뜻을 사람에게 부여하여서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청년법
회가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청년에게 그가 가진 천직을 일깨워 주고, 진리로부터
받은 거룩한 소명을 실현하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이것이 한 개인을 위해
서나, 세상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 지도교무의 역할과 설교

청년·대학생에게 그들의 천직을 일깨워 주려 한다면 먼저 지도인이 스스로 천직을
발견하여야 한다. 만약 지도인 자신이 진리로부터 받은 소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
게 그들에게 이를 발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청년 지도자는 이를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공부하여서 그의 길에 주어진 분명한 사
명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자신의 소명을
얻게 되면 그의 가슴엔 주어진 삶에 대한 열기가 분수처럼 치솟을 것이다.

청년 지도교무는 자신의 천직을 따라 살면서, 아니면 이를 찾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의 체험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길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기
도하며 선(禪)을 권장하고 화두마저도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기 쉬운 의두요목
을 맹목적으로 공부하게 하지는 않음에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부는 자신
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스스로 묻고 깨우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
장에서 청년지도가 중점적으로 요청된다.

청년법회는 역시 설교 시간이 가장 큰 의미를 갖게 한다. 왜냐면 이들은 왕성한 지
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명확한 가치관과 이념을 제시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과
사회에 대한 수많은 문제를 신앙과 수행을 통해 자신 있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
기 때문이다.

설교를 통해서 모두에게 내재한 불성(佛性)을 일깨워 주고, 스스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고 있다. 때
문에 그들의 삶이 실의에 차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에게 용

기와 신념을 심어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하여서 스스로 존귀함을 느끼게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독특함에 대한 놀라운 긍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진 천직을 찾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창조하는 법회

현재의 법회의식은 청년법회라하여 특별한 것이 따로 없다. 다만 일반법회 의식에 준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법회 식순은 거의가 사회자의 의도에 의해 주어진 순서를 밟아가는 형태이다. 때문에 의식이 딱딱하고 그 흐름이 순간순간 단절되어서 신앙의식의 고취가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에게는 (일반에게도 별 차이가 없겠지만)법회의 분위기가 보다 자연스럽고, 스스로 대중이 참여하여서 자기실현의 장이 보다 넓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법회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청년 스스로가 자기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실현의 장으로써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의식의 틀을 강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청년 · 대학생 법회는 그들 나름의 특성과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법회를 통해 스스로 천직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게 되면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열렬히 표현하고 참여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법회의식은 당연히 이들의 참여하에 신앙 체험담을 발표하게 하고, 이들의 기도가 임해지며, 성가와 독경 등의 의식이 그날을 몰입하게 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서 법회의 모든 의식을 통해 높은 성취의욕을 배양하도록 한다.

특히 단 법회를 잘 활용하여서 그날의 법회를 함께 평가하게 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기 느낌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법회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법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이들은 법회를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가꿀 것이다. 그러나 법회가 일정한 형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막연히 신앙과 수행을 진작시키는 정도의 범주에 머물거나, 단지 친교의 장으로써 밖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쉽게 법회를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나날이 바쁜 시간 속에서 법회를 성실히 자기 것으로 가꾸는 여유를 잃게 될 것이다.

▣ 맺는말

법회가 청년의 천직을 찾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법회를 운영해 가게 한다면 단조롭고 딱딱한 법회 분위기는 불식될 것이다. 또 이러한 법회는 더욱 생명력을 갖게 되고 청년들에게 진실로 법회 의식이 기쁨과 보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교단의 미래는 앞으로 이들 청년·대학생에 의해서 발전될 것이며, 이들이 스스로 천직을 발견하고 실천해 간다면 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마저도 곳곳이 헤쳐 갈 인재들이 청년법회를 통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청년을 지도하는 이는 마땅히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여서, 진리에 소명의식 없이 안이한 자세로 이들의 앞에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끊임없는 적공과 기도로써 신앙을 다지고, 아직도 자기 소명을 찾지 못하였다면 겸허한 자세로써 이 문제를 그들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주어진다면 「청년법회」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 특집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원불교 법회의식

- 신앙을 통해 인생관 정립 -

信陀圓 송 흥 인 교무

첫 교화 일선에 임하는 교무는 대부분 먼저 학생법회와 만나게 된다. 예비교무 시절 청소년 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화는 그동안 연구하고 생각했던 만큼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준, 지도교무의 역량과 정성, 그리고 주위의 여건들이 골라 맞을 때 학생회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이라는 입장

학생법회는 우선 대상이 많은 제약이 따르는 학생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법회 담당 교무는 먼저 학생들의 입장과 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신앙과 생활(학과 공부를 포함해서) 양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회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성적,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짐이 지워져 있다. 이러한 심적 부담은 스스로 많은 시간적 제약을 느끼게 하고, 또한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법회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신되지 않고서는, 학생법회는 그저 할 일 없이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학생법회를 담당하는 교무는 학생들이 신앙을 가지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학과 공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심을 쓰거나, 아니면 신앙이 학과 공부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 성적도 좋아지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원만한 성격이 형성되어 교우관계나 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치우치다 성적이 떨어지고 교우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학생

회의 지속문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담당 교무들은 항상 학생들의 성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당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에 고심을 하게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담자로, 때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 대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바탕위에서 법회의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한다.

▣ 학생법회의 방향

학생들은 시대적 흐름, 주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체되어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회도 정해진 식순대로만 늘 진행하게 되면 쉽게 싫증을 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된다.

새롭고 다양한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법회계획과 행사계획이 일관성 있게 짜여야 한다. 무엇을 하기 위한 법회인지 확실한 주체의식이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흥미를 위주하게 되면 종교적인 분위기보다는 서클활동이 되고 만다. 법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주마다 특색을 살려 법회를 진행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째 주는 기도법회, 좌선법회, 둘째 주는 정해진 식순에 의한 법회, 셋째 주는 교리실력 향상과 발표력을 기르도록 하는 법회, 넷째 주는 참회 반성의 법회로 기도문, 일기, 글짓기 등을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회의 교화단 활동은 사간의 제약관계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법회의 기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나 시간을 너무 많이 주어서 법회의 마무리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제한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 법회의식과 신앙적 분위기

학생회에서 청년회로, 청년회에서 일반법회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학생법회의 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학생법회가 행사나 친목 쪽으로 치우쳐 정작 뿌리 내려야 할 신앙적 분위기 조성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따른다.

진리와 만나는 신앙적 체험을 법회는 담당해야 한다. 법회가 세상의 다른 많은 모임과 다른 것은 말과 형식에 있지 않고 그 신앙적 경건함에 있지 않을까 한다.

모든 법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으나 우리는 진리와 만나는 신앙적 체험의 방법으로 기도의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기도 법회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기도문을 작성하여 봉독하기도 하고, 기도를 주관하게도 하면 기도의 생활화는 물론

법회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이다. 기도법회 뿐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 기도와 심고를 생활화 할 수 있게 지도하고 기도헌금을 바치는 정성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4축 2재의 의식에는 시간 관계로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법회를 이용해서라도 행사를 치루고, 대재에는 고축문을 직접 읽음으로써 원불교인의 뿌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설교 방향에 있어서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시절의 한마디 깊은 감명이 인생관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간혹 학생법회의 설교가 신앙과 수행의 평형을 잃고 수행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깊은 신앙인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설교에 임하는 교무는 먼저 정전을 비로한 우리의 교서에 대해서 자신할 만큼의 깊은 연마가 있어야겠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바도 이것이요 배워야 할 바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깊게 다루거나 알기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된다. 교리를 평이하게 실생활에 부합시켜 설명하되 이 설교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관이 정립되고,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겠다. 때문에 학생회의 설교는 야단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방향이 바람직하다.

학생회 설교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서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너무 짧게 하면 설교를 위해 연마한 성의가 없어보여서 학생들을 실망하게 한다. 그래서 설교의 시간은 15~20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간 내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요령 잡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일반법회의 노인들에게나 적절한 예화들을 학생들에게 구태의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생법회는 많은 운용의 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주체는 확실하게 하되 틀에 박히지 않는 묘를 살려야 하고,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법회를 보되 활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해야겠다. ☞

< 특집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원불교 법회의식

- 童心의 호기심을 신앙의 뿌리로 -

이 진 상 교도

미래의 교단의 주인이 될 인재를 키워내는 막중한 사명 속에 전국의 각 교당들마다 주1회 어린이 법회를 진행해가고 있다. 각 교당의 부 교무님, 혹은 청년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동심이 되어 노래하고 뛰어놀며 대종사님의 어린 제자로 훌륭히 커가고 있다. 과연 그들을 원불교의 어린이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 흥미 있는 법회

우선 그들을 보다 큰 차원의 원불교 인으로 키우기에 앞서 교당까지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원불교 인으로 키우고 싶어도 교당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를 키워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을 교당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흥밋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노래하고 고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신앙적인 바탕에서의 놀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평범한 노래와 놀이를 많이 알고 있어 언제든지 지시하고 지켜보는 입장이 아닌 솔래도 같이 되고 벌칙도 함께 받으면서 그들이 사는 세계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교당에 나오면 재미있고 즐거운 곳을 인식시켜 준 다음 좀 더 신앙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우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과자와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던 까닭으로 그곳이 무엇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곳인 줄도 모르는 채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교회에 갔었던 기억들이 거의 누구에게든지 한번쯤은 있을 게다. 그때 우리의 기억으로는 신앙이나 믿음에 앞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끔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이 풍부하여 그런 것들이 어린이를 이끌 수 있는 유혹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예로 본다면 지금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유혹거리를 찾아야겠다. 그렇다면

그 유혹거리는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되고 뒹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뛰고 뒹굴 수만은 없는 일. 좀 더 체계를 잡아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교육시키는 기관이 부족한 탓인지 일선에서 직접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재가 교사들의 짧은 실력으로 어린이를 맡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몇 개의 교구에서는 원불교 어린이 지도자 모임인 꿈 받이 있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한 원기71년 여름에는 전국 꿈모임을 갖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동이나 놀이를 연구하는 일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좀 더 그들을 교단차원에서 교육하고 자료를 만들어 준다면 그들의 역량과 신앙의 덩어리들이 잘 어울려 교단에서 원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원불교 어린이 교화를 훌륭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타 종교 즉 기독교나 천주교 아니 불교에서조차도 어린이의 교화를 크게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물론 어린이 법회에 노래나 놀이가 큰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교시간이나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선은 어린이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회의 시작 전과 끝난 뒤에 놀이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 교화와 교재개발

그렇다면 교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우선 설교 시간을 보자.

그 시간만큼은 교무님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재가 교사들이 좀 더 친숙하게 동화 형식의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과 더불어 교무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한 교무님과 가까워지므로 해서 신앙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다고 본다. 설교와 더불어 어린이 교리 공부는 우선 교전이나 다른 교서에 나와 있는 어려운 한자어부터 쉽게 읽힐 수 있는 우리말로 바뀌어져야하겠다. 어른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나 문장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 교서들을 어린이들이 어떻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그 교서들을 어린이들 수준에 맞는 문장이나 언어들을 찾아서 고쳐 준다면 아마 어린이들에게는 대종사님의 좋은 말씀이나 깊은 뜻을 그들 스스로 읽고 해석하여 그들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만들 것이다. 또한 대종사님이나 많은 훌륭하신 선진님들의 어린 시절이나 일화들을 어린이 수준에 맞는 그림책으로 부터 동화, 테이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만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책자화 된다면 그들이 자라면서 평생을 지켜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성가만 해도 그렇다. 정다운 친구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곡들이 주옥같은 곡

임에는 틀림없지만 간혹 너무 노래가 길어서 어린이 들이 쉽게 배우기 힘든 곡이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16마디 정도의 곡이 아주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전국의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본다면 만4세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를 한꺼번에 수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최소한 3개 반 정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함에도 청년 선생님들이 부족한 탓에 어려움은 더욱 커가고 있다.

놀이만 해도 그렇다. 미취학 어린이 수준에 맞추려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이 재미없어하고 고학년에 맞추려하면 그 밑의 학년이나 어린이들이 싫어하고 이런 형편이다 보니 언제나 고학년 어린이나 미취학 어린이에게는 소홀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어린이 법회를 진행해오면서 유년회를 지나 학생회 청년회를 올라오면서 그들이 어린 시절 다져졌던 신앙의 뿌리로 하여 교단과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통해 교단이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성인들을 교도로서 교화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어린 시절 신앙의 뿌리를 굳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미래의 교도로서, 교단의 주인으로서 법사까지도 키워 낼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느껴야 하겠다. 나 역시 어린이 법회를 다녔고 어릴 적 신앙의 뿌리로 하여 오늘날까지 단단한 신앙의 기틀을 갖고 있음을 확신한다.

일선에서 어린이 법회를 담당하는 많은 청년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나 그들이 그동안 연마해왔던 기능들을 서로 발표하여 거듭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일도 시급하다. 그래서 그들의 교당과 어린이를 연결시키는 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더욱 많은 어린이를 포용할 수 있고 그 어린이들을 굳은 신앙인으로 키워 나가는데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진상 / 전주 꿈밭회원 / 전주교당 청년

발표 3

현장 법회식순에 대한 사례

조 상 호 교무

▷ 원불교 서면교당

현장 법회식순에 대한 개선 보고

대상	예전집례집	강남교당	인천교당	서울 시민선방	안암교당청년회
	좌중10타	법회 전 성가	사은헌배송(2회)	<1부>	법회 전 성가
	1.개회	1.사은헌배송	1.좌중10타	1.좌중10타(개회)	1.좌중10타
	2.법신불전 헌배	2.불전헌배	2.개식	2.불전헌배	2.개회
	3.입정	3.좌중10타	3.불전헌배	3.설명기도	3.입정
	4.독경	4.개회	4.입정	4.심고가	4.영주21독
	5.성가	5.몸풀기 요가	5.영주7독	5.염불10분	5.기원문
	6.설명기도 및 심고가	6.입정	6.기원문합독	6.좌선15분	6.일원상서원문
	7.범어봉독	7.영주	7.심고 및 심고가	7.의두연마5분	7.반야심경
	8.일상수행의 요법	8.기원문합독	8.독경	8.무시선법 봉독	8.청정주7독
	9.성가	9.심고 및 심고가	9.기원문결어	9.성가(125장)	9.안암교당 비전서원문
	10.설법	10.독경(서원문,심경)	10.범어봉독	10.공고	10.성가127장
	11.심고	11.범어봉독(교무)	11.성가	11.신입교우 소개	11.일상수행의 요법
	12.성가	12.일상수행의 요법	12.설법	12.다과시간 20분	12.상시응용주의사 항
	13.폐회	13.경강	13.교당소식	<2부>	13.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14.성가대 찬송	14.폐회	13.입정	14.성가2곡
		15.설법(마무리기도)	15.비전구호	14.재가강연	15.요가
		16.성가		15.설법 및 강평	16.강연
		17.신입교도 소개		<3부>	17.설교
		18.교당소식		16.일기기자	18.질의응답
		19.산회가		17.회화	19.교당소식
		20.폐회		18.일원상서원문	20.폐회
				19.저녁심고	21.새교우 소개
				20.심고의 노래	22.교회단 단회

※ 교당들의 법회진행을 보면서 들어진 생각들

1. 이미 보급된 법회식순에 준하여 법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모습에서는 교당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 똑같은 식순의 법회를 진행하는 교당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먼저 법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습이 다르다.
 - 불단에 누가 올라가 있는가? 재가인가? 출가인가?
 - 법회의 의미를 법을 강론(설법)하는데 둘 것인가?, 법을 훈련(정기훈련11개 과목)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2가지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 법회시간의 제약을 받는 교당(설교중심), 법회시간의 제약이 없는 경우(설교+훈련)
 - 법회와 훈련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 교도들의 현실은 법회 참석에도 급급하다. 그러나 훈련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많다.
실제로 단계별 훈련에 참여하는 숫자는 매년 거의 동일한 수준.
단계별 훈련을 통해서 교도들이 변화되었고, 되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법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백년성업 기도가 법회에 추가되면서 식순의 변화가 생겨났다.
 - 원기100년까지 적용할 식순이라면? 연구해야 될 문제.
4. 교무들은 법회를 통해서 교도들에게 깨달음과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 인간의 감성적 요소를 건드려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어떻게 유도할까?
 - 훈련을 법회에 녹여보려는 열망?(설법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
5. 전수조사를 통해 교당들 마다 다양한 방법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
 - 거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6. 법회출석 숫자에 따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촌)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식순이 다르다.

- 오늘 다루어지는 교당들은 주로 대도시의 경우가 많다.

7. 문답, 감정, 해오, 소득유무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식의 전체적인 흐름의 문제(죽비의 사용. 불단사용. 등단시기, 사회

세부적인 식순에서

불전헌배

법회시 기도의 진행방법

입정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것인가? 식순의 한 과정으로 진행할 것인가?

4. 일상수행의 요법

5. 독경 - 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청정주3독

6. 성가(성가대? 합창단, 반주, 지휘)

■ 메 모 ■